

SYMPOSIUM

에밀 타게 신부의
업적과 가치전승



SYMPOSIUM

에밀 타케 신부의 업적과 가치 전승

일 시: 2019년 12월 7일 오후 2시

장 소: 천주교 제주교구 동광성당

주 최 : 천주교 제주교구, 사단법인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주 관 : 사단법인 제주역사문화진흥원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교구 서귀포성당

에밀 타케 신부의 업적과 가치 전승 심포지엄

[일 정]

■ 인사말	14:00~14:10	강우일 베드로 주교 (천주교 제주교구장)
■ 기조강연	14:10~14:30	문창우 비오 주교 (천주교 제주교구 부교구장) 제주와 함께 걸었던 선교사-에밀 타케
■ 주제발표	14:30~14:50	박찬식 박사 역사학자, 전 제주학연구센터장 에밀 타케 신부의 제주에서의 사목활동
	14:50~15:10	김찬수 박사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에밀 타케 신부의 식물학 연구 업적과 제주 식물의 가치 전승 방향
	15:10~15:30	황태종 요셉 신부 (천주교 제주교구 선교사목위원장) 생태 영성에 비추어 본 에밀 타케 신부의 업적
■ 휴식	15:30~15:40	
■ 종합토론	15:40~16:30	좌장_강만생 원장 (사단법인 제주역사문화진흥원) 강시영 기자 (전 한라일보 선임기자) 송관필 박사 (제주생물자원연구소장) 황종열 박사 (두물머리복음화연구소장)



모든 피조물과 한 형제자매로 살아갑시다.

강 우 일 베드로 주교(천주교 제주교구장)

물질적 탐욕에 중독된 인류문명의 소비주의로 인하여 생태계의 창조질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이 인간이 배출한 오염 물질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특별히 가난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으며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2020년 9월 1일 '피조물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피조물(창세 1,27 참조)로서 공동의 집에서 형제자매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피조물을 향해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참회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뿌리로 돌아갈 때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소박하고 반듯한 생활양식을 수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주도는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심각해져만 가는 생태계 위기 속에서 울창한 숲과 생명을 간직한 땅과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개발된 땅보다 보호된 땅이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은 개발된 곳이 아니라 개발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며 도시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는 순간의 작은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세세대대로 제주인에게 해야될 수 없는 영적이며 또한 동시에 물질적 이익을 가져다 줄 하느님의 선물을 훼손하려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식구인 감귤 나무를 선물하셨고, 제주인의 친구인 왕벚나무 자생지를 기록하셨으며, 제주의 식물 하나하나를 하느님의 찬란한 광채를 발하고 있는 고귀한 보물로 관찰하고 기록하신 에밀 타케 신부님의 삶을 되새기는 심포지엄이 제주인들에게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목 차

[기조 강연]

제주와 함께 걸었던 선교사-에밀 타케	3
----------------------	---

[주제 발표]

에밀 타케 신부의 제주에서의 사목활동	14
에밀 타케 신부의 식물학 연구 업적과 제주 식물의 가치 전승 방향	31
생태 영성에 비추어 본 에밀 타케 신부의 업적	69

[토론문]

에밀 타케 신부의 식물학적 업적에 대한 생각	101
업적·삶 재조명 가치 제고해 나가야	102
에밀 타케 신부의 존재의 향기를 그리며	104



[기초 강연]

제주와 함께 걸었던 선교사

문 창 우 비오 주교(천주교 제주교구 부교구장)

제주에 공식적으로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99년이다. 그리고 제주본당(제주시)과 한논본당(서귀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주의 선교가 진행되었다. 나름대로 쉽지 않은 모험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씩 교회의 기초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1901년, 안타깝게도 당시 선교사들이 가진 유럽문화 우월적인 사고와 선교사들이 가진 양대인의 분위기는 제주지역에 교회의 씨앗을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축년에 일어난 제주교안(일명 이재수 난)이다. 당시 세금의 폐단과 교회의 폐단이 얽혀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의 길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에밀 타케 신부다.

무엇보다 오늘날 타케 신부가 돌아가신 지 약 67년이 되었지만 식물학계나 가톨릭 안에서도 선교자로서, 교육가로서, 특히 식물학자로서의 타케의 업적과 공로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자료의 소실이나 부족도 문제지만 식물학계나 종교계 어디에서도 에밀 타케 신부를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 심지어 아직까지 에밀 타케 신부는 기념비조차 하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방인 선교사인 에밀 타케는 쇠국정치로 쇠락해가는 조선 말기 농민들의 극심한 가난을 극복하려 하였고 일제 식민통치하에 서서히 사라져가는 한민족 공동체 안에서 구원사업을 펼쳤다. 그에게 조선은 또 하나의 조국이자 마지막 종착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선 선교사 에밀 타케 신부가 1898년 조선 땅에 입국하여 1952년 선종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다. 무엇보다 에밀 타케 신부는 당시 뮌헨(민덕효, 1854~1933, 제8대 조선 대목구장)에게 보낸 18편의 서한 모두에서 자신이 '교황 파견 선교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당시 대부분의 프랑스 선교사들은 조선을 문명의 종교인 천주교로 개종시켜 야만적이고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교육하는 것을 '문명화의 사명'이라 믿었고, 이것은 19세기 유럽인들의 일반적인 시대정신이기도 했다.¹⁾

1) 1900년대 초에 조선 땅에서 함께 선교를 펼쳤던 독일의 성 베네딕도 수도회와는 선교의 목적이나 방법에서 크게 달랐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에밀 타케 신부보다 13년 뒤에 조선에 온 성 베네딕도회 총 아빠스 노르베르트 베버(1870~1956) 신부는 조선과 조선 사람들의 독창적인 전통과 문화를 깊이 존중하려 했으며, 또 소통하였다.

타케 신부가 조선에서 보낸 시간은 총 55년이다. 재임기간 중, 대구에서 교육자로 31년을 지냈고, 제주도에선 선교사와 식물 채집가로 13년을 지냈으며, 남도에서는 목포와 나주 지역을 포함해 섬들과 내륙의 수많은 공소에서 7년을 지냈고, 부산과 진주, 마산에서 4년을 지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도 타케 신부는 징집 대상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에 그는 두 번 다시 프랑스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결국, 조선에 입국한 후 한 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구 남산동에 묻혔다.

1899년 6월 29일, 첫 소임지 부산본당에서 에밀 타케 신부는 약 1년간 사목하다가 진주본당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하게 된다. 타케 신부가 진주로 갈 것을 자원했고, 주교에게 진주본당 설립을 건의했던 것이다. 부산에서 진주를 거치면서 에밀 타케 신부는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해 어느 정도 선교사로서의 자신감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훗날 그는 무세 신부의 후임으로 제주도로 가게 되는데, 적응과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제주도 선교를 포기하고 마산포로 갈 수밖에 없었던 무세 신부와 비교해 성공적인 선교를 펼쳤다고 볼 수 있다. 신축교안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타케 신부가 제주도에선 13년, 그리고 목포에 축을 둔 전남권에서 7년 동안의 선교 사목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어도 부산, 진주, 마산, 동막골, 통영, 함안, 고성 등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 후 타케 신부는 1902년 4월 20일 라크루 신부와 동반해 마산포를 떠나 서귀포 하논 본당(한논 본당이라고도 함) 제3대 주임신부로 발령을 받아 마산포에서 제주 하논으로 가게 된다.²⁾ 하논 본당은 1900년 6월 12일에 설립된 제주 산남 지역 최초의 성당이다. 1902년 6월 27일에는 서흥동 흥로본당으로 이전했다가 1937년 8월 15일, 지금의 서귀포성당으로 이전 정착한다.

당시 김원영 신부가 쓴 『수신영약』은 1901년에 집필한 것으로 총 43장 분량인데 천주교 교리의 특징, 천주교에 대한 제주민들의 의식, 제주도 풍습과 미신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수신영약』의 내용은 제주도 민중과 그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내용이었으며, 지역 및 향촌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주도 지역 사회는 방성철의 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 화전세 징수에 대한 화전민에 대한 불만, 지역 사회의 배타적인 성격과 문란한 풍습, 일부 신자들이 치외법권적인 신부의 특권을 남용함에 의한 주민들 사이의 갈등, 서구 우월주의에 따른 제주 고유 신앙 세력과의 충돌, 성직자들의 지나친 간섭과 전교 우선주의 등 이미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러한 요소가 세금 징수관 강봉헌이 신자들을 이용한 강압적인 세금 징수로 인해 결국 신축교안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 『신성학원 100년사』, 32쪽

김 신부는 1901년 4월 사제피정으로 서울에 갔다가 5월에 하논 성당에서 발생한 신축교

2) <에밀 타케의 선물>, 정홍규, 다빈치, 2019, p 13-22 참조.

안 소식을 듣게 된다. 뮌헨 주교는 김신부가 다시 하노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뮌헨 주교가 김 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는지, 혹은 신축교안에 대한 문책으로 그렇게 조치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프랑스 선교사들은 선교의 방법에서 토착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나아가지 못했다. 해당 선교 지역의 관습과 문화,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과 통찰을 강조하였던 예수회의 선교 방식과는 대조를 이룬다.³⁾

김원영 신부의 미간행 저서인 『수신영약』 또한 일종의 호교서이자 교리책이지만 제주민들의 삶의 뿌리인 풍습, 관습, 생활양식, 신앙체제를 모두 이단으로 규정하고 하루아침에 천주교의 신앙으로 바꾸려 하다가 결국 교안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교황청 포교성성의 훈련을 반영한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지침인 ‘모니타’를 보면 세 가지가 두드러지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교인들의 구원을 통한 사도직의 성화, 둘째는 비신자들의 개종, 셋째는 교회 조직의 건설이었다. 『수신영약』은 이 세 가지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지역의 문화나 전통을 존중하라는 모니타의 또 다른 중요한 지침은 지키지 않은 셈이다. 유럽적인 신앙관습을 이식하지 말라는 교황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파리외방전교회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뮌헨 주교는 조선 제8대 교구장으로, 1891년 2월부터 1911년 3월까지의 조선 교구장으로, 대구교구가 분리된 1911년 4월 8일부터 1933년 1월까지의 서울 교구장으로 재임하며 한국 가톨릭의 기초와 바탕을 이뤄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뮌헨 주교의 정교 분리 종말지향의 내세관은 조선의 신자들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역사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 이런 태도는 지금의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역사상 초유의 사건인 제주 신축교안을 해결하는 과정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은 프랑스 제국주의 정책과도 무관할 수 없었다고 진단된다.⁴⁾

초기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근대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성숙이원론에 토대한 초월주의 신앙 유형 및 내세주의 신앙은 사회 문화 활동의 폭을 크게 제한하였다. 또한 문화적 우월주의적인 태도와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행세는 그들이 전개하는 그 나머의 활동도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전통이나 내재적 요구, 그리고 역사적 현실과는 유리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이 주도하는 개화기의 한국교회는 교회 정신과 단절되는 한편 민족사와도 단절되는 이중단절의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게

3) 파리외방전교회는 1658년 7월 29일에 창설하여 현재까지 361년을 이어오고 있는 선교단체다. 조선에 온 프랑스 선교사들은 프랑스의 국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였고,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1883년)처럼, 일본이 조선을 지배(1910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여기에 항거한 선교사는 거의 없었다. 가톨릭 선교사의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원주민의 반야만적인 성격과 문란한 풍습.. 합법적인 결혼을 한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이 뮌헨 주교의 보고서들을 보면 신축교안은 영혼구령 ‘쿠라 아 니마룸’의 가치관과 제주도의 ‘전통과 풍속’의 가치관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1911년 2월 21일, 뮌헨 주교 자신이 독일에 가서 조선 학교 진출을 위해 직접 초대된 베네딕도회 총장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조선을 방문하였다. 두 수도회의 리더는 조선 선교에 있어서 선교 방법과 목적이 전혀 달랐다. 한쪽은 오직 개인 영혼구령만이 구원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다른 한쪽은 뼈저리게 가난했던 조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사구시를 통한 영혼구령이라고 믿었다.

됐다.

조선이 정교분리를 주장했던 파리외방전교회의 뮈텔 주교와 은총의 역할을 과장되게 설명하는 안세니즘과 역이지 않았다면 한국 가톨릭은 어떻게 변모했을까? 안세니즘은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원죄 이후의 죄 많은 인간을 강조하며 인간성과 몸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부정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엄격성과 보수성을 강조하다 보니 초월적이며 개인주의적이고 내세 지향적인 신앙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안세니즘은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에 의해 1653년 이단설로 판정받았다.⁵⁾

당시 에밀 타케 신부는 즐지에 제주도 하논에 오게 된 이유는 신축교안으로 상처를 받은 무세 신부가 의욕 상실로 하논 성당에서의 사목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자 주교로부터 인사 부탁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김 신부는 하논에 다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됐고, 무세 신부는 하논에 더 이상 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결국 타케 신부가 하논에 가게 된 것이다. 타케 신부는 하논 성당에 부임한 즉시, 한라산이 잘 보이고 하논 분화구에서 가까운 서흥동 홍로로 성당을 옮겨버렸다. 신축교안으로 만신창이가 된 하논 성당을 서흥동 홍로성당으로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판을 만든 것이다.⁶⁾

어쨌든 이로써 타케 신부는 하논 본당 시대를 끝내고 13년 사목생활을 하게 되는 홍로 본당 시대의 막을 열었다. 1903년에는 30명의 영세자가 있었고, 200여 명이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04년에는 성인 35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1905년에는 157명이나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1909년까지도 제주도에겐 겨우 두 개의 성당만 있을 뿐이었고, 공소를 세울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도 신자는 불과 349명에 지나지 않았다. 교세의 확장은 매우 더딘 것이었지만, 대학살의 트라우마 속에서도 혈맥이 딱 막힌 고정관념과 편견을 걷어내며 제주민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⁷⁾

또한 그의 선교활동 업적 가운데 두드러지는 점은, 타케 신부의 식물 채집 행적이 등장하는 이 서한으로서 그래서 귀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이 자료를 보면 타케는 포리 신부의 수제자나 다름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포리 신부는 초창기 일본 식물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일본 파견 선교사였다. 포리 신부는 생애 대부분을 일본에서 활동했으며, 조선을 세 번 방문해 서귀포 홍로성당의 타케 신부에게 선교 외에

5) 앞의 책, 29-44 참조.

6) 1902년 6월 17일에서 7월 20일 사이에 타케 신부는 빛을 내어 하논에서 5리 떨어진 서흥동 홍로에 집 한 채를 얻어 성당을 옮겼다. 신축교안으로 하논 본당 신자 수는 187명에서 35명으로 격감했고, 흉흉한 민심에다가 흉년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타케 신부의 주머니는 늘 적자여서, 뮈텔 주교에게 자주 돈타령을 하곤 하였다. 타케 신부의 고백에 의하면 빛이 330 피아스트르라고 하였다.

7) 1911년 대구대목구가 생기면서 제주도는 대구대목구에 병합되었고, 타케 신부도 대구교구에 소속됐다. 타케 신부는 1915년 6월 목포로 발령이 났고 라크루 신부도 제주를 떠났다. 타케 신부는 제5대 본당 신부로서 목포성당(1915~1922년)을 책임지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제주도 홍로공소와 남서부의 노안성당을 돌보았다. 그리고 전남 지역과 목포의 수많은 섬들의 사목 방문을 빼놓지 않았다.

식물 채집과 표본 제작 방법도 전수하였다.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에는 타케 신부의 서한 18통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11통이 홍로에서 작성된 것인데, 서한 중에는 타케 신부가 제주도에 부임하자마자 하논에서 홍로로 본당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것도 있다. 사실 그 당시 제주도 안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있었고, 제주도 앞바다에는 프랑스 군함도 출병해 있었다. 그 군함들은 선교사들의 든든한 심리적, 외교적, 물적 지원 부대였음이 틀림없다. 프랑스 함대가 출병한 것은 박해 종식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선교사 보호 차원의 종교적인 것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정책은 프랑스 제국주의 정책과 관계되어 있었고, 선교사들도 자연히 자국의 제국주의 외교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당시 제주도민들은 제주 앞바다에 등장하는 프랑스 함대를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선교사는 왕이 내린 신표를 가지고 있었고, 치외법권과 영사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천주교로 개종하기만 하면 같은 권한을 누릴 수 있었기에 이 권력에 편승하여 신앙과 무관하게 입교하려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몰려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른바 ‘갑질’은 신축교안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사실, 타케 신부의 18통의 서한에는 공소를 매입한 것, 이교도와의 갈등, 신축교안 희생자 장례식, 식물 채집, 홍로본당 성사 내역표와 같은 교세 현황까지, 일종의 사목 보고서와 같은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또 서한을 보면 타케 신부는 제주도 홍로본당에 오기 전만 하더라도 사목지였던 부산, 진주, 통영, 함안 등에서는 식물 채집에 대한 관심이나 언급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식물 채집을 하게 된 동기는 역시 일본의 전설적인 식물 채집가 포리 신부와 만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한에서 식물 채집이 언급된 날짜는 1908년 1월 6일이다. 포리 신부의 식물도감에 대한 지적도 이 서한에서 나온다. 포리 신부는 1906년과 1907년 제주도 홍로본당에서 타케 신부를 만났다.

그 당시, 59세의 포리 신부와 33세의 타케 신부였으니 파리외방전교회 안에서는 선후배 신부라기보다는 마치 부자간 같았을 것이다. 포리 신부는 공식적으로 제주도에 세 번 온 걸로 기록되어 있다. 포리 신부는 1901년 5월 3일 일본 아오모리에서 대마도, 나가사키를 거쳐 5월 22일 서울 남산, 진남포, 북한산, 인천, 연변, 평양, 강원도, 원산, 부산, 목포 등지에서 10월 초까지 머물다가 부산을 통해 시모노세키를 경유해서 일본에 다시 입국했다고 한다.⁸⁾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홍로성당은 흙돌담, 즉 제주도의 다공질 현무암으로 쌓은 초가집의 원시성으로 아주 소박했음에 틀림이 없다. 홍로성당 설립 당시 신자 20명으로 시작한 이 소박한 땅에서, 검은 수단을 입고 긴 수염에 파이프 담배를 지닌 타케 신부가 친

8) 포리 신부는 1901년 5월 3일 일본 아오모리에서 대마도, 나가사키를 거쳐 5월 22일 서울 남산, 진남포, 북한산, 인천, 연변, 평양, 강원도, 원산, 부산, 목포 등지에서 10월 초까지 머물다가 부산을 통해 시모노세키를 경유해서 일본에 다시 입국했다고 한다.

말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동네를 오갔을 것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다.⁹⁾

1904년 타케 신부는 성인 35명을 영세시키는 기쁨을 누렸고 미사를 드릴만한 공소도 몇 곳에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1909년 제주도는 두 개의 본당과 349명의 신자수를 헤아리게 되었다. 굉장히 느리지만 발전적이었다. 그리고 타케 신부는 산속에 또 하나의 공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포리 신부가 타이베이에서 1915년 7월 4일 갑자기 병으로 별세하자, 타케 신부 또한 선교의 도구로 활용했던 식물 채집을 내려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홍로 성당은 1915년 6월 7일 에밀 타케 신부가 목포 산정동성당으로 전임되면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1922년부터 제주와 전남에서 파리외방전교회가 철수하게 되자 에밀 타케 신부는 대구신학교에 교수신부로 부임하게 된다. 그리고 1937년 8월 15일 서귀포본당이 하논과 홍로를 거쳐 현재의 서귀포성당으로 이전하면서 하논과 홍로성당은 역사의 한편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에밀 타케 식물원 격이었던 홍로본당 시절의 사제관과 소성당은 애석하게도 1967년 1월에 철거되었다. 서귀포의 옛 홍로성당 터에는 지금 면형의 집이 자리하고 있다. 홍로성당은 타케 신부가 1915년 목포성당으로 전임된 뒤 공소로 바뀌었다가 이후 한국순교복자수도회에서 관리했다.¹⁰⁾

1908년, 드디어 타케 신부는 포리 신부의 코칭 없이 혼자 힘으로 해발 600미터 지점에서 왕벚나무를 발견해, 1912년 독일 베를린대학 쾨네(1849~1918) 교수에게 표본(채집번호 4638번)을 보낸다. 발견 장소는 한라산 북측 관음사 뒤쪽이라는 것이 일반적 정설이다. 또한 100년 동안 참혹한 박해 속에 옹기를 팔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선조 교우들의 가난을 체험한 타케는 성당을 짓고 영세만 주는 것에 부족함을 느꼈기에 식물 표본을 만들어서라도 선교 자금을 만들었다고 본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도토리라도 주워 먹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타케는 굴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융합하기 위해 포리 신부에게서 굴 묘목을 받았던 것이다. 타케 신부는 그 지역의 문화나 습성, 그리고 생태와 자원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에 비해 김원영 신부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과격하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선교를 하여서 결국 신축교안이 발생했던 것이다.¹¹⁾

9) 그리고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라크루 신부는 1909년 10월 18일 오늘날의 초등학교 격인 신성여학교를 세우는데, 이미 1년 전부터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는 가운데 학교를 세우려고 기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마산포에 주임신부로 소임 받은 무세 신부가 1910년 9월 초등교육기관인 '성지학교'를 세웠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인다. 신성여학교는 라크루 신부가 전임되고 난 뒤 1916년에 일제의 탄압과 재정난 등이 겹쳐 폐교되었다가 1946년 스위니(1895~1966) 신부에 의해 '신성여자중고등학교'로 복교되었다.

10) 앞의 책, p 49-74 참조.

11) 에밀 타케 신부는 제주 식물학의 효시일 뿐만 아니라 식물분류학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한국 식물 연구사에 있어서 타케 신부와 포리 신부의 식물 채집 기록은 1890년대 코마로프(1869~1945, 구소련의 식물학자로 그의 이름을 딴 코마로프 식물 연구소가 2015년 12월, 1886년~1902년 사이 전 구한말 시대의 한국 관속식물 표본 100여 점을 기증)와 1909년 나카이(1882~1952, 일본 식물학자로 한국의 식물 조사와 식물 자원 수탈에 행적이 많은 인물)가 『Flora of Korea』를 발표하기까지의 빈 시

청일전쟁(1894~1895년)과 러일전쟁(1904~1905년)의 승리로 자만에 빠진 일본에서 서양인 선교사들의 입지는 좁아졌다. 포리 신부는 여전히 열정이 넘쳤지만 인간 선교에서 식물 선교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일본에서 유명한 식물학자로 존경과 인정을 받았지만 선교사로서의 삶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포리 신부는 1915년 68세에 뇌출혈로, 타케 신부는 1952년 79세에 심장 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선교사로서나 식물학자, 그리고 식물 채집가로서 일본과 한국에서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두 신부는 식물학적 기초나 식물분류학을 전혀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식물을 최초로 체계화시킨 식물 채집 활동을 펼쳤다. 오늘날 두 신부가 채집한 많은 표본들이 전 세계의 주요 연구실에서 표본으로 활용되고 공유되고 있다.

타케 신부는 제주도를 방문하여 왕성한 식물 채집 활동을 한 식물학자 포리 신부의 영향을 깊이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타케 신부는 마산과 진주에서 첫 선교를 할 때에도 제주도 하논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하였을 때도 선교 자금이 너무 부족했다. 뮌헨 주교에게 보내는 서한을 읽어보면 타케 신부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주교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호소했다. 타케 신부는 선교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식물 채집을 시작했다가 점점 그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포리 신부는 식물 채집이 전부였지만 타케 신부에게 식물 채집은 시한부였다. 타케 신부는 제주도를 떠나면서 식물 채집도 손을 놓았다.

타케 신부는 1906년 홍로에서 포리 신부를 만난 뒤부터 1907년을 거쳐 1908년까지 온 힘을 다해 한라산의 식물을 채집했다. 그리고 1913년 제주도 밖으로 나와서 목포와 인천의 식물을 채집한 것이 제주도 외 채집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로는 거의 식물 채집에서 손을 떼는 듯 어떤 기록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포리 신부는 두 번째 대만 방문인 1915년 6월까지 평린에서 생애 마지막 식물 채집을 하였다. 포리와 타케는 참으로 비교되는 인생을 살았다. 포리 신부가 식물 채집으로 불꽃같은 삶을 살았다면 타케 신부는 선교로 불꽃 같은 삶을 산 것이다.

포리 신부와 타케 신부는 똑같이 파리외방전교회에서 한술밥을 먹고 선교사가 됐으며, 또 그 종교적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두 신부는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만행을 종교와는 분리시켰고, 일본을 조선이라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영혼구령 선교 속에 식물 채집을, 또는 식물 채집 속에 선교를 수행했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만의 역동성과 잠재적 창조성으로 동아시아 식물 연구에 커다란 자취와 의미를 남긴 것이 사실이다.¹²⁾

간대를 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 일본의 포리 신부 경우에는 자신이 식물학자라는 장점을 마음껏 활용하여 아오모리현을 다니면서 채집한 식물 표본을 유럽과 미국의 수집가들에게 매각했다. 그 자금으로 사제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게 하였으며, 9개의 새 본당을 세워 교회를 만들기도 했다. 그렇다면 타케 신부 역시 포리 신부의 충고를 받아들여 식물 채집을 시작했을까?

타케 신부는 선교사로서 처음부터 식물 채집가가 된 것은 아니다. 1886년 한불수호조약과 1896년 교민조약 이후의 정교분리 정책 등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서 포리 신부와의 만남은 타케 신부를 자연스럽게 식물 채집가의 길로 이끌었다. 그 당시 제주도에 이방인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인내와 용기가 절실히 요구되던 일이었다. 식물 채집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이었기도 하고, 일제강점기의 정교분리 정책에서 나온 선교사의 방편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1898년 부산본당의 3대 주임신부였고, 1899년 진주본당 설립에 이어 1900년에는 마산본당 초대 주임신부를 거쳤던 타케가, 1902년 4월 20일 하루아침에 제주도 하논 본당의 주임신부로 오게 된 배경에서도 사실 식물과의 특별한 관계성을 찾아볼 수는 없다. 그저 당시 상황이 자연스럽게 얹혀 타케를 제주도에 데려다놓은 것이다. 타케 신부는 제주도 한라산에서 왕벚나무 자생지를 발견하는 등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하지만 만약 1899년 제주도가 오로지 초월을 추구했던 파리외방전교회와 엮이지 않았다면 신축교안이 일어났을까? 물론 가정일 뿐이고 시간은 비가역적인 것이지만, 나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¹³⁾

또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선교자들의 군대 소집으로 여러 본당의 주임 신부 자리가 공석이 되자, 대구교구 교구장 드망주 주교는 제주 서귀포 흥로 성당에서 목포 산정동성당으로 에밀 타케 신부를 발령냈다. 징집 면제를 받은 타케 신부를 통해 공석이 된 여러 본당을 메꾸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에밀 타케 신부의 공식적인 식물 채집활동은 1906년 시작해 1913년에 매듭지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타케 신부는 1922년 대구 성유스티노 신학교로 가기 전에 전쟁에 동원된 카다르 신부의 목포 지역 후임자로서 소임을 다한 것뿐만 아니라 역시 전쟁에 동원된 계량성당 주임신부 카다르의 임무까지 맡아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빈자리를 지켜야 했다.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들은 1922년 제주도와 전라도에서 철수했으며, 1931년에 전라도가 대구교구 감독대리구로 승격됐지만 2년이 채 되기 전에 드망주 주교는 전라남도 지방을 성골롬반외방선교회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계량성당은 카다르 신부가 세계대전에 소집됨으로써 제대할 때까지 5년 동안 목포 산정동 성당의 에밀 타케 신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다. 1919년 프랑스에서 계량에 다시 돌아온 카다르 신부는 중단됐던 공사를 마무리했고, 장성, 영광, 함평 답 정리, 나산, 나주 봉황면 등에 공소를 열었는데, 당시 교우 수는 300명이었다.

당시 1911년부터 1930년까지 대구교구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관리했고, 전라도는 제주도를 포함했다. 1931년 5월 10일, 즉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에 대구교구장 드망주 주교가 교구를 나누는 것을 허락받고 전라도 감독대리구를 설정했다. 1899년과 1931년 사이에 타케 신부의 선교활동은 목포, 계량(노안), 제주, 흥로, 이 네 본당과 이들 본당의 공소를 중

13) 앞의 책, 77-160 참조.

심으로 이루어졌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젊은 선교사들이 전쟁에 소집되면서 에밀 타케 신부는 제주도 하논-홍로 본당을 떠나 목포 산정동 성당-나주 계량 본당(현 노안 본당의 전신)-남서해안 모든 섬들의 공소를 겸임해 선교 사목을 묵묵히 수행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말미암아 프랑스 선교사 대부분이 징집되는 바람에 제주 성당과 홍로 성당은 성직자 없는 공소의 시기가 6년 동안 지속되었다. 게다가 가난한 제주도 청년들은 일 자리를 찾아 오사카로 떠났으며 일제의 탄압으로 신성여학교가 휴교되는 등 제주도 천주교는 침체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922년 파리외방전교회가 전남과 제주에서 철수하자마자 그해 8월 25일부터 대구교구 소속이었던 에밀 타케 신부는 거의 20년 동안 선교한 제주와 목포를 떠나 1914년 설립한 대구교구 성유스티노신학교에 교수신부로 부임하여 한국인 신부 양성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타케 신부는 1928년 10월 23일 성유스티노신학교 3대 교장으로 선임되었고, 1933년 10월 30일 회갑잔치를 하였으며, 1952년 1월 27일 성유스티노신학교에서 선종하였다.

무엇보다 타케 신부는 18년 동안 대신학교 교수신부로 있으면서 12년은 대신학교 학장으로 일하였다. 1964년 12월 15일 대구교구청에 화재가 발생해 에밀 타케 신부의 유물과 많은 표본과 관련 문헌들이 다 소실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타케 신부의 귀중한 표본은 우리나라에는 단 한 점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1940년 7월 타케 신부는 신학교 학장직이 자신에게 너무 과중하다 여기고 사임을 했다.

에밀 타케 신부는 24세에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1945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일본에 의해서 직간접으로 탄압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 가톨릭교회의 친일 행태를 어떻게 느꼈을까? 뫼텔 주교나 1933년 드망주 주교가 교회와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사 참배’ 허용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을 에밀 타케 신부는 인정했을까? 그에게 닥친 고통은 신사 참배로 끝나지 않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포항 오천 예수 성심시녀회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타케는 한 달 동안 낙동강 전선에서 벌어진 무서운 전투를 목격하였고 인천상륙작전 이후 10월 1일에야 다시 신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때 타케 신부는 침구류는 물론 속옷까지 모두 빼앗긴 상태로 오직 남은 것은 하느님밖에 없었다.

타케 신부는 조선 남서해안의 모든 섬들을 전담했다.¹⁴⁾ 그의 직무수행은 매우 힘들었다. 거의 모두가 허술한 배를 타고 여행해야 하는 위험의 연속이었다. 다른 곳에서는 잘 통용되는 방식이 이곳에는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방식이 매우 피곤

14) “중기선을 타고 14시간 걸려 도착한 제주도는 10년 동안이나 라크루 신부와 타케 신부에게 굳건한 덕성과 인내심을 갖게 합니다. 그들은 대학살이 있었던 1901년부터 주의 은총이 재난으로 입은 상처를 아물게 해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교난 이후 몇몇 여인들과 어린이들만이 그곳에 남았지만 현재는 교리도 잘 배우고 수계도 잘하는 교우 수가 400명이나 됩니다. 두 신부는 매우 진지해 보이는 1,500명의 예비자들을 등록시키게 되어 기쁩니다.”

하기는 하였지만, 빌린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오래 묵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감당하기가 쉬웠다.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할 수 없는 침착함과 인내심을 필요로 했다. 타케 신부는 다행히도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들 누구보다도 책임자였다.

그는 말했다. “저는 나쁜 마음에서가 아니라 무지한 까닭에 죄를 범하는 이 불쌍한 섬사람들에게는 가능한 한 관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정신 상태는 불가해합니다. 주교님도 그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려고 진력해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후에는 그들이 받아들인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나쁜 마음에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압니다. 진실은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지는 못하고 정신 속에 스며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을 정도가 못 됩니다. 그들에게 걸여된 것은 그들을 알 수 있는 신부와의 충분한 접촉입니다. 그들에게 걸여된 것은 그들을 알 수 있는 남녀회장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전교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이곳 공소에서 살고 있는 회장들, 즉 그다지 교육을 받지 못한 신입교우들로서는 충분치가 못합니다. 선교사는 배로 여행하기도, 여인숙에 오래 묵는 것도 매우 힘든 겨울이 아니라 가을에 순회 여행을 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불과 몇 사람에게 성사를 베풀 뿐이라 하여도, 각 공소에서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섬과 이웃 작은 섬에 살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통지가 전달되어 저에게도 달려올 시간과 돌아갈 시간,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집을 지키고 있던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노력과 재력, 그리고 많은 실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들 아름다운 섬들을 좋은 본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에밀 타케 신부는 조선의 땅, 여러 외진 곳 등에서 선교활동을 했고, 그의 선교하는 태도와 모습은 참으로 인간적이다. 1876년 개항과 1886년 한불조약으로 프랑스 함대의 비호 아래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선교활동을 했던 프랑스인 조선 선교사의 시비지심과는 달리 타케 신부는 선교사로서 측은지심의 깊은 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프랑스인 에밀 타케 신부가 자신의 문화적 우월감을 내려놓고서 조선인과 공감하려는 마음을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에밀 타케는 명상에 몰두하고, 고매한 인격을 지녔으며, 의복 등에 사치함이 없고, 항상 프랑스식 둥근 검은 모자에 파이프 담배를 즐겼으며, 검붉은 긴 수염에 흉안백발이며, 중키의 강건한 체력을 가졌다.”고 한다. 회갑 후 1940년 7월 타케 신부는 대신학교 학장직을 스스로 사임한 후 평교수로 지냈다.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건 타케 신부의 평소의 덕망을 보여주는 자세이다.

1944년 일제의 압력에 의해 대신학교는 문을 닫았다가 해방 후에도 다시 문을 열지 못하고 1945년 2월 일제에 의해 폐교되면서 일본 육군에 의해 징발되었다. 그 무렵 그는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의 지도신부로 지낸다. 1948년 대전교구가 생기

면서 파리의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을 재편하였으나 타케 신부는 대구에 남는다. 그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편이었으나 난청이 생겼다.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대신학교 한편에서 지냈다. 타케 신부는 다른 선교사와는 달리 '식민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선교사'임을 보편적인 선교 방식으로,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¹⁵⁾

포리 신부가 일본에서 선교사로서의 삶보다 식물 채집가로서 역할이 더 강하게 부각되는 것은 포리 신부 자신의 고백에서도 드러나듯이 그 당시 일본에서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리 신부에게는 선교사로서의 삶보다 식물학자로서의 일이 더 우선이었고, 그것은 일본의 근대화로 인한 선교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반면에 타케 신부가 식물 채집가로서의 일보다는 선교사로서 평생을 수행한 데에는 조선인의 따뜻한 마음과 소박한 삶의 자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에밀 타케 신부의 선교 사목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간과 공간, 즉 마산이면 마산, 홍로면 홍로, 섬이면 섬, 한라산이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선교사로서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본질로 살아갔던 것이라고 본다. 에밀 타케 신부는 선교사로서 평정과 인내 속에,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아름답고 소중한 식물들을 관찰하고 채집하며 '치유의 힘'을 얻었다고 생각한다.¹⁶⁾

에밀 타케 신부는 한국에 파견된 파리의외방전교회의 어떤 선교사보다도 독창적인 민낯을 가진 선교사이다. 에밀 타케 신부는 한일병합 전 1898년에 입국해서 한국전쟁 2년 뒤인 1952년에 조선 땅에 영원히 묻혔다. 에밀 타케 신부는 대단하고 대담한 조선의 선교사로, 조선인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섬세하고 조용하게 조선에 융화되었다. 타케 신부는 식물 채집가라는 괴짜 선교사가 아니라 평생을 조선의 진짜 선교사로 살았던 인물이다.¹⁷⁾

15) 에밀 타케 신부는 하느님뿐이라는 마음으로 선교사로서 온갖 두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살아왔음을 느낄 수 있다. 어쩌면 에밀 타케 신부는 1897년 9월 27일 한국으로 가야 할 운명이 미리 정해진 채서품을 받은 후, 식물 채집만 했던 식물분류학자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뿐이라는 신앙'으로 선교의 일기관지로 한라산을 오르며 식물 채집을 했을 것이다. 베르만의 탐사나 선교사들의 채집 역시 미지의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의 박물학 연구의 맥락과 무관하지 않지만 에밀 타케 신부의 활동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선교활동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물론 타케 신부가 채집한 수많은 표본은 현장 선교활동을 위해 일부 매각되기도 했다.

16) 앞의 책, p 165-244 참조.

17) 위의 책, p 235.

[주제 발표]

에밀 타케 신부의 제주도 사목활동

박 찬 식 박사(역사학자, 전 제주학연구원장)

1. 머리말

에밀 타케(Emile Taquet, 嚴宅基, 1873~1952) 신부는 1902년 제주도 남부지역의 중심인 서귀포의 하논성당 제3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1915년 목포 산정동성당으로 옮길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제주도에서 사목 활동을 펼쳤던 사목자였다. 그는 1901년 신축교안(‘이재수란’)으로 황폐화된 하논성당을 복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남부지역 선교의 새로운 거점인 흥로 마을로 성당을 이전하여 왕성한 사목활동을 이어갔다. 그의 성공적인 선교사목 활동으로 자칫 설립한 지 몇 년도 안 되어 좌초할 뻔했던 제주교회는 복구되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타케 신부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근대시기에 전교의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향촌 사회에서 관·민에게 ‘양대인자세(羊大人藉勢)’의 권위적인 이미지로 다가왔던 파리외방성교회 출신 여타 신부들과는 달리 제주도의 생태와 문화, 사회와 사람들을 진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만났던 사제였다.¹⁸⁾ 오늘 발표에서 타케 신부의 제주도 선교사목 활동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가 제주섬에서 지냈던 여정의 시간을 반추해 보고자 한다.

발표자는 기왕의 연구를 통해 1901년 제주교안(제주민란)을 ‘근대 외래문화와 토착문화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 민란의 발발 과정에서 주목되는 사건이 하논성당에서 일어난 ‘오신락 노인 사망’이며, 그 배경에는 1900년 김원영 신부가 저술한 교리서적 『수신영약(修身靈藥)』이었다. 『수신영약』에는 토착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민간 무속신앙과 제주지역에서 행해지는 각종 제례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배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신영약』에 담긴 내용과 같이 천주교회는 당시 지역사회와 문화에 대응하여 충돌했으며, 결국 신축교안의 주요 발발 원인으로 작용했다.

“1901년 제주민란을 전후하여 제주민들의 삶과 문화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봉세관과 천주교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제주민들은 고려 때 호종단(胡宗旦)이 입도하여 지맥·혈맥을 끊어버려 탐라의 전통을 말살하고, 2백 년 전 이형상 목사가 부임하여 신당을 모두 불태워버림으로써 토착문화를 부정된 사실을 떠올렸다. 천주교는 제주민들이 믿고 모셔온 제주신령을 ‘악귀’로 여겨 배격하였고, 이에 대해 제주민들은 천주교를 ‘제주를 빼앗기 위해’ 온 것으로 인식하여 강력히 저항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백 년 전 제주에는 무교와 유교가 공

18) 정흥규, 『에밀 타케의 선물』, 2019.

존하는 토착문화의 토양에 신학문과 천주교로 대표되는 근대 외래문화가 유입됨으로써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장이 되었다. 그러나 각 문화집단 간의 극단적인 상호 배척으로 결국 1901년 제주민란과 같은 엄청난 문화 충돌을 빚게 되었다.”¹⁹⁾

이러한 제주교안 직후 사후 처리 과정에서 제주도에 부임한 타케 신부가 제주 선교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는 교안으로 인한 제주교회의 피해 복구와 선교의 안정화라는 미션이 주어졌으며, 이를 위해 제주도 남부지역 선교의 새로운 거점을 서귀포 흥로에 마련하여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펼쳐갔다. 다른 지역 주민들과 유리된 채 음습하고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던 하논 분화구를 나와서 서귀포의 중심인 흥로 마을의 대지에서 주민들과 개방적인 만남을 통해 선교를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사목의 장을 열어나갔던 것이다.

타케 신부는 흥로공소 사목 기간을 포함하여 총 20여 년 간 제주도 사목활동을 통해 지역과 종교, 문화와 종교, 자연과 영성의 만남과 대화를 이어나간 제주도 교회사의 표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목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제주교안 직후 하논본당 부임, 교·민 갈등과 해결, 흥로본당 이전 이후 교회의 복구 과정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개괄해 보고, 타케 신부의 제주도 사목활동의 교회사적 의미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제주교안 직후 제주교회의 상황과 타케 신부의 부임

1901년 제주교안 직후 제주교회는 잔여 교민에 대한 보호에 주력하였다. 1901년 6월 9일 알루이트호가 다시 오자, 위협을 느낀 교민들이 라크루 신부에게 배를 타고 목포로 피신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무세 신부가 50여 명의 교민을 데리고 목포로 갔다.²⁰⁾ 이들은 대부분 제주본당(대로동본당)의 교민들이었다.²¹⁾

이후에도 새로운 학살의 위협과 가난 때문에 제주에서 살기 어려워진 교민들 중 일부는 목포로 이주하였다. 제주본당의 경우 다섯 교민 가정이 목포로 떠났다. 부친이 피살된 조다비드는 다섯 명의 영세자를 포함한 열 명의 가족 전부를 데리고 목포로 갔다. 또한 부친이 피살된 최바르바라 역시 모친 엘리사벳과 함께 고향 전라남도도 떠났다. 제주도의 첫 영세자인 윤요셉도 누이와 가족들을 데리고 목포로 가서 근처에 정착하였다. 조마르코·박베난시오·송요한의 가족도 교회에 알리지 않고 육지로 향하였다. 1902년 4월에는 한 예비신자 가족 9명이 제주에서 부산으로 가다가 배가 침몰하여 익사하기도 하였다.²²⁾ 한편 라크루 신부는 살해된 예비신자와 새 신자들의 자녀들을 聖嬰會에 수용하여 보호하였다.²³⁾

1901년 교안 직후 제주지역의 교민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하논본당 신자들은

19) 박찬식, 『1901년 제주민란 연구』, 2013.

20) 「위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1년 6월 11일자 서한.

21) 「위텔문서」, 김원영신부의 1901년 6월 12일자 서한.

22) 「위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2년 5월 21일자 서한 ; 「위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3년 3월 30일자 1903년 연말 보고.

23) 「위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1년 12월 17일자 서한.

138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들었다. 예비신자는 600여 명에 달하다가 6명밖에 안될 정도였다. 신자들은 하논에 33명, 색다리 2명 정도에 불과하였다.²⁴⁾ 예비신자 46명을 포함하여 65명의 교민을 확보했던 색다리 공소는 교안으로 인하여 완전히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성내 대로동 본당의 경우, 신자 59명 중 25명만이 정기적인 성사를 보고 있고, 나머지 신자들도 그다지 열성적인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교안 당시 제주읍내로 피신하여 온 제주 남부의 하논본당 소속 교민들이 원래 거처지로 돌아가기를 꺼리자, 대로동 본당의 라크루 신부는 이들의 교적 이동과 식량 문제의 해결로 어려움을 겪었다.²⁵⁾

지역별 교세의 전체적인 추이를 다음의 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 제주도 지역별 교민 수(1899~1910) 〉

시기 지역명	1899~1900	1900~1901	1901~1902	1902~1903	1903~1904	1909~1910
제주군	20(10)	104(?)	59(?)	50(?)	90(?)	207(25)
대정군	?(?)	37(239)	?(?)	?(?)	14(30)	?(?)
정의군	?(20)	101(382)	35(6)	60(100)	87(131)	195(14)
계	20(30)	242(?)	94(?)	110(?)	191(?)	402(39)

(출전 - 『본당별 교세통계표』(1899~1910). 괄호 밖은 신자 수, 안은 예비신자 수)

제주본당(제주군)의 교세는 1903년 초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예전보다 활기는 없지만 예비자들이 늘기 시작하였다. 1902년 성탄 때 10명을 영세시켰고, 제주도 주둔 군인들 가운데 일부가 입교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안의 영향이 미처 가시지는 않았다. 목포에서 오는 자들이 목포 사람들은 제주 교민들이 또다시 학살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함으로써, 교세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²⁶⁾ 그런 중에도 1902년 5월 라크루 신부가 피정을 다녀온 이후 일부 신자가 교회에 복귀하여 1903년 3월 현재 새로운 영세자를 포함하여 신자 수는 50명으로 늘어났고, 예비신자의 수는 늘기 시작하였다.

하논본당(대정군·정의군)의 경우, 1902년 4월 20일 무세 신부의 후임으로 타케(Taquet, 嚴宅基) 신부가 부임하여 교세 회복에 주력하였다.²⁷⁾ 그가 하논본당에 도착하였을 때 계속 종교의례를 지키는 신자는 서너 명에 불과하였고, 교안의 여파로 하논 마을에는 거의 과부들뿐이었다. 1902년 새로이 영세를 받은 신자는 8명에 불과하였다.²⁸⁾ 당시 신자 수가 60명이라고는 하나, 그 대부분은 이전 김원영 신부 때 신자들이다. 이들은 교안 이후 원래 거처지로 복귀한 자들로서 신앙생활을 중단한 자들이 많았다. 타케 신부는 김신부 때 영세 받은 자들 가운데 5~6명이 성당에 나오지 않고, 나머지 신자들 중 일부는 나오기는 하지

24) 『본당별 교세통계표』 하논본당(1901~1902) 참조.

25) 『본당별 교세통계표』 제주본당(1901~1902) 참조.

26) 「뮌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3년 1월 12일자 서한.

27) 타케 신부는 5월 31일 제주에 도착하였고, 6월 9일 하논본당에 정착하였다(「뮌텔문서」, 타케신부의 1902년 6월 17일자 서한).

28) 세례대장을 보아도 부임 이후 1903년까지 확보한 신자 수는 12명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만 성사를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에 보이는 예비신자 수 100명은 모두 남자들로서, 대부분 교안 과정에서 살아남은 자들로 보인다. 타케 신부는 이들이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본당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신자로 확보하는 데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²⁹⁾

3. 계속되는 교·민 갈등

1901년 제주교안 직후 교회 측은 교민 피살이 있는 뒤에도 제주사회의 분위기가 교회 측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교민들은 자기들에 대한 살해는 보상을 받고, 살아남은 교민들은 약탈당하고 경멸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마을마다 교민들의 배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민군의 지도자들을 동정하고, 피살된 교민들과 살아남은 교민들에게는 비난의 여론이 형성되었다. 찰리사 황기연이 민군 측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존하여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공직에 있던 교민들이 면직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³⁰⁾ 교안의 진원지였던 대정군의 교민들은 더욱 심한 피해를 입었다.³¹⁾

제주 교회는 당시 여러 마을에서 주민들의 교민에 대한 박해가 사사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교민들을 ‘법국 새끼’로 취급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라크루 신부는 9월에 이르러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민들을 자신이 직접 나서서 돕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남녀 교민들을 ‘도가’라는 공공건물에 모아 놓고 그들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옷 벗는 것과 때리는 것을 보게 하였고, 아이들도 부모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한 교민은 색달리 강상호가 여신자들을 자기 방에 불러들여 문을 잠그고 옷을 벗게 하고 매질을 하였다고 진정하였다.³²⁾ 불타버린 교민들의 집은 한동안 다시 짓지 못하였다.³³⁾

교안이 끝난 후 제주에는 중앙으로부터 여러 관리들이 파견되었다. 당시 제주교회는 이러한 지방관들을 계속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불신하였다. 교회 측은 제주교안의 이면에 대정군수 채구석과 같은 지방관들의 반교회적인 입장이 작용하였다고 파악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지방관에 대한 반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우선 교회 측은 신임 대정군수 허철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잔인할 정도로 엄격”하고, “마을의 우두머리들에게 교민들을 단죄토록 하고 그들에게 벌금을 내리고 태형을 가하며 중노동형을 부과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지적하였다.³⁴⁾ 교민들을 탄압하는 강상호와 그 일당이 대정군수와 향교 회장의 측근들이라고 하였다.³⁵⁾ 또한 교민들이 군수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불신하였다.³⁶⁾

29) 『본당별 교세통계표』 흥로본당(1902~1903) 참조.

30) 「위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1년 6월 20일자 서한. “교민들이 백정보다 더 멸시당하고 있다. 그들은 예전에 있던 모든 일자리에서 떨어져 있다. 남아 있는 교민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인심’을 얻도록 굳게 결심을 하고 있다.”(「위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1년 9월 14일자 서한). 실제 향리층 교민들이 배제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31) 『위텔 주교 일기』 1901년 8월 26일.

32) 「위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1년 9월 28일자 서한.

33) 위와 같음.

34) 「위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1년 9월 14일자 서한.

35) 「위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1년 9월 28일자 서한.

신임 제주목사 이재호에 대해서는, “전 목사 이상규만큼 탐욕스러운 자”라고 악평하고,³⁷⁾ “목사는 어리석고, 진정서에 좋은 대답만 해줄 뿐이고, 불행한 신자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명령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그토록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때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목사를 아비한 자라고 혹평하고 있다.³⁸⁾

서울서 파견된 검사시보 황진국³⁹⁾에 대해서는, 서울로부터 교민을 살해한 자들을 처벌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무시한다고 생각하였다. 교회 측에서는 그를 완고하고 신임 없는 인물로 평가하였다.⁴⁰⁾ 그는 1902년 6월경 잠시 서울로 갔다가 7월에 다시 제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당시 교회 측은 그가 제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다. 라크루 신부는 주교에게 그의 귀환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⁴¹⁾

1902년 이후에도 이러한 교회와 향촌사회의 갈등은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다. 예컨대, 1902년 12월에는 민란 주동자 김남혁이 석방되고 귀향한 뒤 자신에게 백 명의 무리만 있으면 교민들을 모두 학살하겠다고 공공연히 발언하였다.⁴²⁾ 1903년 초 정의군 지역에서는 천주교의 폐지를 요구하는 等狀이 준비되기도 하였고,⁴³⁾ 하논성당이 자리잡은 호근리에서는 許座首라는 자가 반교회적인 비밀결사를 설립하고 더 나아가 마을을 둘로 해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⁴⁴⁾ 정의군의 예비신자 김희주는 두 형제를 살해한 자기 마을의 몇 사람에게 복수심을 품고 두 형제의 아들들을 부양하라고 격렬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⁴⁵⁾

이런 와중에 서귀포 하논성당에서는 소위 ‘양시중 사건’(1902)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하논에 사는 교민 박재순이 예촌에 사는 별감 양시중을 때린 데 대하여 일본인과 결탁한 송시백과 일본인들이 무기를 들고 하논마을에 돌입하여 난리를 일으켰던 데서 비롯되었다. 즉, 1902년 6월 10일 하논본당 교민 박재순이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양시중이 춘궁기에 음주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박재순이 대들면서 서로 싸움이 붙었다. 이 과정에서 양시중의 탕건이 부서졌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타케 신부는 박재순에게 엄한 벌을 내리고, 양시중에게 탕건 값 4냥을 변상하였다. 그런데 돌연 6월 13일에는 서귀동의 송시백의 집에 체류하던 일본인 11명이 총포 2자루와 군도 3개, 창 4개, 깃발 2개를 가지고 고동을 불면서 하논마을에 사는 교민들을 공격하였다.⁴⁶⁾

36) 위와 같음.

37) 「위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1년 9월 14일자 서한.

38) 「위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1년 9월 28일자 서한.

39) 1901년 8월 19일 제주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목 검사시보로 임명되었다(『官報』 1901년 8월 23일).

40) 「위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2년 2월 19일자 서한.

41) 라크루 신부는 “그는 신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조사를 했고,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 받은 신자들을 옳다고 보지 않았던 자이다.”라고 하여 제주에 오지 않기를 바랐다(「위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2년 6월 30일자 서한).

42) 「위텔문서」, 타케신부의 1903년 3월 4일자 서한.

43) 「위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3년 3월 12일자 서한.

44) 「위텔문서」, 타케신부의 1903년 3월 4일자 서한. 타케 신부는 이 단체를 제주교안 직전 설립된 대정군의 상무사와 전적으로 같은 반교회적 조직이라고 보았으며, 김남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마을을 둘로 나누겠다는 것은 교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하논 마을을 호근리에서 떼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45) 「위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3년 6월 11일자 서한.

하논마을은 교회가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서, 제주교안을 경과하면서 많은 교민들이 피살되어 교세가 급격하게 약화되었지만, 그때까지도 교민들 상당수가 모여 거주하던 교민촌이었다. 한편 하논마을과 인접한 서귀동은 포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본상선이 수없이 이곳을 왕래하였고, 이곳에 일본인 수십 명이 천막을 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었다.⁴⁷⁾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 프랑스 신부가 포교를 하던 천주교회와 경제권을 장악해가던 일본어민들 사이의 갈등은 언제라도 표출될 수 있었다. 더구나 송시백이 하논본당을 설립했던 김원영 신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⁴⁸⁾ 이 사건은 제주교안 발생 이전부터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토착세력과 일본어민들이 교안 이후 교회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

당연히 타케 신부는 이 사건을 일본인들이 교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파악하였다.⁴⁹⁾ 또한 당시 라크루 신부는 일본인들이 프랑스와의 충돌을 구실로 한국 영토를 점령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뮌텔 주교가 직접 나서서 서울의 일본 공사관과 담판하여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⁵⁰⁾ 또한 제주지역의 여론을 듣건대, 이 사건의 원인은 서귀포의 일본어 통역사 송시백에게 있고, 목사는 일본인들을 두려워하여 처벌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제주도 주둔 조선수비대 대장도 군인들의 행동 시 수백 명의 일본인 어부들이 군인들에게 대항할까 봐 두려워하였다고 하였다.⁵¹⁾

목사는 이 사건에 대해 라크루 신부가 주교에게 보고하는 시기를 늦춰달라고 부탁하였다. 결국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송시백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전하여 왔다.⁵²⁾ 라크루 신부는 흥로본당의 타케 신부가 자제하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일본인들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고, 타케 신부도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⁵³⁾ 이러한 교회 측의 일본에 대한 경계는 이미 제주지역에서 천주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진 반면, 일본 세력이 커져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라크루 신부는 제주읍에 정착한 일본인 영어교사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집을 매입한 데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⁵⁴⁾ 이는 교회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1906년 발생한 상명리의 소나무 벌목 사건을 치르면서 교회는 제주에 진출한 일본세력의 실상을 뚜렷이 확인하게 되었다.⁵⁵⁾

46) 이 사건의 전말은 『신축교안과 제주 천주교회』, 254~271쪽에 수록된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타케 신부는 만취한 일본인 13명이 일장기를 펼쳐두고 무기를 든 채로 박재순의 집을 공격하였다고 보고하였다(「뮌텔문서」, 타케신부의 1902년 6월 17일자 서한).

47) 1902. 5. ; 1902-118 ; 자료집 2, 263쪽. 일본어민들의 제주 연근해 포구로의 진출은 이미 1880년대부터 이루어져 제주어민들과 심한 마찰을 빚었다(박찬식, 『1901년 제주민란 연구』 제7장 참조).

48) 「뮌텔문서」, 타케신부의 1902년 6월 17일자 서한.

49) 「뮌텔문서」, 타케신부의 1902년 6월 17일자 서한) ; 1902년 7월 20일자 서한.

50) 「뮌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2년 6월 28일자 서한.

51) 위와 같음.

52) 「뮌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2년 6월 30일자 서한.

53) 「뮌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2년 7월 26일자 서한.

54) 「뮌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3년 3월 12일자 서한.

55) 소나무 벌목 사건의 실상은 『신축교안과 제주 천주교회』, 284~289쪽과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208~215쪽과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232~235쪽에 기록되어 있다. 1906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라크루 신부가 1903년경 장차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할 재목을 얻기 위하여 상명리의 소나무밭을 매입한 적이 있었는데, 1906년경 일본인들이 제멋대로 이 밭의 소나무 25그루를 전신 주용으로 벌목하여 버린 데서 비롯되었다. 1901년경 라크루 신부는 소나무값을 대신하여 상청골의 향

양시중 사건에서 보듯이, 이미 향촌사회에 일본세력의 침투가 이루어짐으로써, 교회와 일본세력이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교회의 대응 자세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약화된 것이었다. 이로써 제주교안을 겪은 뒤 천주교회는 제주지역 내에서 사회세력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고, 그 영향력은 서서히 일본세력에게 전이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4. 흥로성당으로 이전

1) 김원영 신부의 하논성당 설립

하논성당 부지와 본당 및 사제관으로 사용할 초가집을 구입한 김원영 신부는 우선 부지를 매입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혀 놓았다.

“저는 페네 신부님이 안 계신 동안에 두 말 두 되지기 보리밭 한 뚝을 145냥에 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페네 신부가 서울로 올라가시며 집이나 과원을 좀 사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성철이라는 신문교우를 통해 그의 집 가까이에 있는, 위에서 말한 밭을 살 수 있었습니다. 위치는 외교인들을 개종시키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밭 위와 아래에 300가구의 많은 외교인들이 살고 있고 생수도 가까이에 있으며, 100보가 못되는 거리에 신문교우들이 살고 있습니다.”(위텔문서 1900-38, 1900년 3월 22일)

“저는 라크루 신부님의 배려로 논이 많아서 한논(大畚)으로 불리는 정의군의 마을로 교우들과 상주하기 위해 며칠 후 떠날 것입니다. 저는 교우 집 하나를 빌려 본당 집을 살 때까지 거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위텔문서 1900-75, 1900년 6월 10일)

따라서 하논성당 부지는 하논마을의 주민 최성철의 집 가까이에 있는 밭을 매입하였으며, 이 부지에서 가까운 초가집을 매입하여 성당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하논성당 부지가 있던 밭의 북쪽인 호근마을과 하논마을을 포함하여 거주민은 300가구가 분포하고 있었다. 1904년에 작성된 『三郡戶口家間摺冊』에는 당시 호근리(하논마을 포함)의 연가가 267호이고, 남자 566명, 여자 584명 합계 1,150명이라 하였다. 이 당시 와가는 없고 초가 1,053호가 있었다고 하여 김원영 신부가 밝힌 수치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하논마을의 주민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축교안이 일어나기 직전 조사한 교세통계표에는 신자 50명, 예비신자 70명 등 총 120명의 하논마을 교민이 거주한 것으로 나와 있으므로, 200명 가까운 주민들이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영 신부가 언제 본당으로 쓰일 초가집을 매입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1901년 1월 28일자 서한을 보면, “지금 예비자들이 근 400명이 되고 영세자는 50명입니다. 그간 4칸 집과 집 마당까지 주일과 침례 때 사람들로 가득 찰 정도로 크게 변했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하논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본당으로 활용할 4칸 집 초가집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⁵⁶⁾

청 건물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논성당을 거점으로 전교 활동을 전개하던 김원영 신부는 신축교안이 일어나기 직전인 1901년 4월 피정 차 상경하였다가 다시 하논성당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하논성당은 신축교안의 과정에서 파괴되고 수백 명의 신자들이 피살되었다. 김원영 신부는 새로운 부임지 목포에서 사태를 피해 바다를 건너온 하논성당 신자 3명을 만나서 피해 상황을 들었는데, 본당과 사제관이 파괴되고 복사 박고스마가 잔인하게 살해되었으며, 하논마을의 많은 남자들이 살해되었고, 다른 마을에서도 민군들이 교민들 345명을 죽였다는 것이다.⁵⁷⁾

2) 타케 신부의 홍로성당 이전

제3대 주임신부로 1902년 4월 하논성당에 부임한 타케 신부는 “이곳 하논의 사정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마을에는 거의 과부들뿐인데, 젊고 늙은 과부 열한두 명이 제 집을 포함해 열한 채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당시의 어려운 실정을 드러내었다. 때문에 타케 신부는 이러한 하논성당의 열악한 실정을 인식하고 새로운 성당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논의 집으로 말하자면 허물어 버리기에 딱 좋을 만하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와서 보니 가장 좋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허술한 집 여기저기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바닥은 땅과 같은 높이여서 위아래로 습기가 차 있습니다. 문 앞에 있는 지붕은 제 어깨까지 내려옵니다. 마루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 때에는 바람을 쐬 수도 없습니다. 반면 방안에서는 여기저기 벽 틈을 통해 바람이 들어옵니다. 더구나 그곳으로 뱀과 다른 벌레들이 지나다닙니다. 집은 논에서 10m 정도 되는 곳에 있으므로 이 마을 사람들의 절반이 말라리아 열병 때문에 제게 키니네를 달라고 합니다. 결국 이곳은 완전히 고립된 마을로 남자들이 없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좋지 않습니다.”⁵⁸⁾

결국 타케 신부는 1902년 7월 본당을 하논에서 홍로로 옮겼다. 타케 신부는 부임 직후 하논본당의 열악한 여건을 간파하고, 다른 본당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1902년 6~7월에 하논에서 5리 떨어진 홍로에 건축 중인 집을 한 채 사서 본당을 이전하였다.⁵⁹⁾

56) 하논성당은 1902년 7월 타케 신부가 본당을 홍로로 옮겨 버림으로써 그 흔적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일제시대를 거쳐서 해방 직후에 하논마을에는 16가구의 주민들이 거주하였으나 4·3사건 때 군·경 토벌대의 소개작전으로 인해 주민들이 인근 호근리나 서흥리로 이주해버렸고, 마을은 1960년대 이후 대부분 감귤 과수원으로 변해버렸다. 때문에 하논마을과 하논성당 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기록상의 미비 때문에 성당의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하논성당은 논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는데, 당시 하논마을 민가들의 상황과 다를 바 없었다. 지적원도(1914년 제작)를 통해 보건대, 하논마을은 논으로 조성된 지대의 남쪽 일부 면적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소로를 따라 양쪽으로 분포한 민가들의 중심부에 하논성당은 위치하고 있었다. 2001년 출간된 천주교 제주교구의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에는 서귀포교회 원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서귀포시 호근동 194번지 일대로 하논성당 터 위치를 추정하여 놓았다. 발표자가 하논성당의 위치를 고증하기 위해 면담한 강두선(姜斗先, 1933년생, 1949년까지 하논지역 거주)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의 고모 진술을 근거로 서귀포시 호근동 131번지로 추정하였다.

57) 「뒤편문서」 1901-75, 1901년 6월 12일.

58) 「뒤편문서」 제주-82, 1902년 6월 17일.

59) 「뒤편문서」, 타케신부의 1902년 6월 17일자 서한 ; 1902년 7월 20일자 서한 ; 1902년 9월 4일자 서한.

“저는 하논에서 5리 떨어진 곳에 있는 홍로에서 건축 중인 집을 한 채 사서 그곳에 정착했으며, 제 사람들은 헛간에서 자는데 여름에는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제게 2천 냥이 필요할 것입니다.”⁶⁰⁾

“저는 하논에서 5리 떨어진 홍로라는 큰 마을에 대지가 넓은 집 한 채를 샀습니다. 땅이 넓어 1,300냥이나 주었는데 집수리가 끝나면 총 비용은 적어도 2천 냥이 될 것입니다. 제 집과 미사를 드리는 사랑채의 수리는 거의 끝났으며 아직 건물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앞으로 지어야 할 소성당 건물입니다. 하논에 있는 집의 재목을 쓸 생각이었지만 단지 들보 몇 개만 쓸 수 있었을 뿐 나머지는 불에 태워야 할 것들입니다. 주교님께서 이 집 값과 수리비용 그리고 건축비를 대주신다고 한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⁶¹⁾



홍로본당의 초가성당 앞에 서있는 타케 신부 (한라일보 기사자료 인용)

5. 교회의 복구

홍로로 성당을 이전한 후 타케 신부는 홍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복구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우선 타케 신부는 불량 교민에 대한 자체 선별과 관권에 의한 처리 원칙을 내세워 교회 정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곳(정의군)에는 신자라고 자칭하며 이교도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불한당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신부들 집(성당)에서 쫓겨났으며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며 자기들의 부모나 형제들이 지난해 학살당했다는 핑계로 이곳저곳을 다니며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그들 중 여러 명을 (정의)군수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정의군수에게 보내어 얼마간 그의 보호 하에 두어 달라고 간청까지 했습니다.”⁶²⁾

60) 「위텔문서」, 타케신부의 1902년 7월 20일자 서한.

61) 「위텔문서」, 타케신부의 1902년 9월 4일자 서한.

그 결과 새로이 이전한 흥로성당에는 예비신자들이 서서히 입교하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개종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⁶³⁾ 1903년 흥로에서만 34명의 새로운 교민을 확보하게 되었고, 특히 제주도 동남부 지역의 교세도 확대시켜 갔다. 이 과정에서 떼미공소가 신설되었다. 1904년 2월 29일 떼미공소를 방문하여 6명의 교민에 대한 영세를 준 사실이 세례대장을 통하여 확인된다. 동남부 지역의 교세 확장 과정에서 예비신자 120명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었다. 또한 교안의 피해를 크게 입었던 대정군 지역에서도 예비신자 30명을 확보하여 교세 회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정군 지역의 선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다.⁶⁴⁾

1904년 이후 흥로본당의 교세 확장은 두드러졌다.⁶⁵⁾ 1904년의 영세자는 43명이고, 1905년의 영세자는 67명이었음이 세례대장에서 확인된다. 1910년 초 당시 신자 총수는 195명에 달하여 교안 직전의 교세를 상회하게 되었다. 1910년 부활절 당시 세례대장에 기재된 영세자 300명에 대한 현황을 통하여 당시 교세를 가늠하여 볼 수 있다.

〈 1910년 당시 교세 현황표 〉

관할 신부별 영세자	신자 현황 세례대장 기재 신자	유고 신자					잔여신자
		사망	이사	냉담	살해	행불	
김원영 신부 영세자	123명	13	15	16	48	9	22명
무세 신부 영세자	10명	1	3	1			5명
타케 신부 영세자	167명	18	25	23			101명
계	300명	32	43	40	48	9	128명

(출전 - 『교세통계표』 타케 신부(1909~1910). * 냉담 : 정기적인 교회 성사를 치르지 않는 신자, * 살해 : 교안 때 피살된 신자, * 행불 : 교안 때 남편이 죽고 비신자와 결혼한 부인과 그 자식들, * 신자 총수 195명에는 이사 온 신자 포함)

당시 교회의 복구와 교세의 확장을 위하여 두 신부는 우선적으로 교회가 순수한 신앙공동체로 정착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신부들은 제주교안의 원인을 제공했던 藉托 교민들의 교회 출입을 특히 경계하였고, 교민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자들은 직접 징벌을 가함으로써 교회를 정화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였다.⁶⁶⁾ 또한 안정된 선교를 위하여 본당의 정착과 건물의 신축·확장, 공소의 증설에 주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회는 전교의 한 방법으로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교육 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 결과 라크루 신부는 1902~1903년 이전에 소규모의 여학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⁶⁷⁾ 결국

62) 위와 같음.

63) 「뮌텔문서」, 타케신부의 1904년 1월 4일자 서한.

64) 대정군은 교안의 진원지로서, 교안 이후 상당 기간 교민들에 대한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아 교세 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뮌텔문서」, 타케신부의 1902년 9월 4일자 서한 ; 『콩트 랑뒤』 1902년도 보고).

65) 1903년까지 타케 신부는 교세 확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뮌텔문서」, 타케신부의 1903년 3월 4일자 서한). 그러나 1904년부터 예비신자들이 늘어나고 개종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뮌텔문서」, 타케신부의 1904년 1월 4일자 서한).

66) 「뮌텔문서」, 타케신부의 1902년 9월 4일자 서한 ; 1903년 3월 4일자 서한.

1909년 10월 18일 제주에 유배와 있던 박영호 등의 도움을 받아 신성여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신성여학교는 라크루 신부의 노력에 의해 개교 첫 해에 40여 명의 학생을 모집함으로써, 1910년대 이후 제주지역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⁶⁸⁾

1910년 한일병합으로 한국 교회는 큰 시련을 겪게 되었지만, 반면 이듬해인 1911년 4월 8일 조선교구에서 대구교구(대구대목구)가 분리 설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구교구 설정으로 제주본당과 홍로본당은 여기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 제주지역의 총 신자 수는 400여 명이었고, 예비신자 수는 1,500여 명이였다. 이러한 제주지역 교회의 상황은 대구교구 설정 직전인 1911년 5월, 조선교구장 뮌텔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 보낸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제주도에는 420명의 신자(제주본당 213명, 홍로본당 197명)가 있는데, 두 명의 선교사(라크루 신부와 타케 신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거나, 공소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면 이 섬의 상황이 그들에게 많은 여가를 줄 수도 있겠지만, 조그마한 여행도 탐험 원정과 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제주도 신자들은 1907년 뮌텔 주교의 제주도 방문에 이어 1911년 10월 말 안세화 플로리아노 대구교구 주교의 제주도 사목 방문을 맞이하게 되었다. 안 주교는 이때의 제주도 순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증기선을 타고 14시간 걸려 도착한 제주도는 10년 동안이나 구신부(라크루 신부)와 엄신부(타케 신부)에게 굳건한 덕성과 인내심을 갖게 합니다. 그들은 대학살이 있었던 1901년부터 주의 은총이 재난으로 입은 상처를 아물게 해 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교안 이후 몇몇 여인들과 어린이들만이 그곳에, 현재는 교리도 잘 배우고 수계도 잘하는 교우 수가 400명이나 됩니다. 두 신부는 매우 진지해 보이는 1,500명의 예비신자들을 등록시키게 되어 기뻐합니다.”

1911년 대구대목구가 생기면서 제주도의 두 본당은 대구교구에 소속되었고, 타케 신부도 대구교구에 소속됐다.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타케 신부는 전쟁 소집 명령을 받고 제주를 떠나 1914년 8월 15일에 대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에 소집 연기를 받은 데 이어서 이듬해 3월에는 징집 면제를 받았다. 1915년 6월 7일 타케 신부는 목포 산정동 본당 주임신부로 임명되었다. 홍로본당에는 영천 용평본당에서 사목하던 김승연(아우구스티노) 신부가 4대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1916년 5월 27일 안세화 주교는 다시 한 번 인사이동을 했는데, 홍로본당의 김승연 신부는 전주본당으로 전임되었다. 그러나 이때 홍로본당에는 주임 신부가 임명되지 않음으로써 사제 공백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구교구장 안주교는 당시 상황을 안타깝게 인식하고 있었다.

“16년 전부터 두 선교사에 의해 복음화되어 온 제주도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수녀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번창했던 학교(신성여학교)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목포(산정동본당)의

67) 「뮌텔문서」, 타케신부의 1903년 10월 2일자 서한.

68) 신성여학교의 설립과 운영·성장과정, 제주지역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양진건, 「제주도 최초 근대여학교, 신성여학교 연구」, 『탐라문화』 18, 1997.

주임인 엄타케 신부는 (제주도) 두 곳의 사제관이 다시 주인을 맞이하게 될 먼 훗날을 기다리며 1년에 두 번 이 큰 섬의 교우들을 방문하러 갑니다.”⁶⁹⁾

결국 홍로본당은 목포 산정동본당의 공소가 되었고, 타케 신부는 목포성당을 책임지면서도 홍로공소를 책임지면서 제주도 사목을 계속 연장하게 되었다.(1915~1922년)

6. 교민 구성의 변화와 교회의 안정

제주교안을 거치면서 제주지역의 천주교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교안 이전과 이후의 교민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제주교안을 전후한 제주지역 천주교회의 변화상을 이해하여 보도록 하겠다.

1) 교민의 지역별 분포

< 하논본당 관할 정의군 관내 지역별 교민 수(1900~1901. 4) >

한 논	호 근	법 환	서 귀	홍 로	토 평	효 돈	불 목	우 미	예 촌	양 근
50(70)	2(33)	2(15)	4(11)	11(43)	3(13)	1(11)	2(6)	3(13)	· (2)	16(85)
栗洞 (감남골)	화 전 (벵딕친밭)	수 망	보 한 (떨 개)	밋노름	도노름	가시오름	표 선	부등개	계	
2(10)	2(16)	2(13)	1(6)	· (3)	· (9)	· (1)	· (10)	· (12)	101(382)	

(출전 - 『교세통계표』 김원영 신부 I(1900~1901). 괄호 밖은 신자 수, 안은 예비신자 수)

< 하논본당 관할 대정군 관내 지역별 교민 수(1900~1901. 4) >

여 산 (염 돈)	강 정	도 순 (돌 순)	하 원	색 달 (색다리)	예 래 (열 리)	중 문	창 천	녹화지	새 당
1(20)	2(19)	1(25)	1(18)	19(46)	2(13)	· (25)	2(5)	3(16)	1(2)
모실개	내 팻	도래물	난드르	감 산	대 포	검은질	대 평	상 천	계
4(4)	· (3)	· (25)	· (2)	· (5)	· (3)	· (1)	· (1)	· (5)	36(238)

(출전 - 『교세통계표』 김원영 신부 II(1900~1901). 괄호 밖은 신자 수, 안은 예비신자 수)

< 하논(홍로)본당 관할 지역별 교민 수(1901. 11~1910) >

한 논	홍 로	호 근	법 환	불 목	효 돈	예 촌	양근이	벵딕친밭	떼 미	웃 기	수망리
23	62	2	5	2	2	16	2	15	25	4	1
울 예	안좌동	상 천	녹하지	열 리	하 원	강 정	제 미	저산이	不 明	계	
10	1	3	2	3	6	1	3	1	1	190	

(출전 - 『하논(홍로)본당 세례대장』(1901. 11~1910)

69) 안세화 주교의 1917년도 보고서.

〈 제주본당 관할 제주군 관내 지역별 교민 수(1909~1910) 〉

제주읍	산 지	옛 개	한 동	소 섬	심 돌	송 당	엄 장 이
72	3	14	14	21	7	2(15)	7
도 노 미	수 원	추 자	다 라 곳	죽 성	대 정	가 오 리	계
16	19(10)	17	3	6	3	3	207(?)

(출전 - 『교세통계표』 라크루 신부(1909~1910). 괄호 밖은 신자 수, 안은 예비신자 수)

첫째, 제주교안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세는 하논본당 관할 구역인 제주도 남부지역이 제주본당 관할 구역인 북부지역보다 강하였다. 그러나 교안 직후인 1902년 초 교세는 제주 북부지역의 신자 수가 절반 정도 감소한 데 반하여 남부지역은 삼분의 일 정도로 격감하였다. 특히 남부지역에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던 예비신자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교안의 영향이 특히 남부지역에 강하게 미쳐졌음을 보여준다. 1902년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북부지역은 정체되고 남부지역은 회복되는 추세로 바뀌었다. 이는 남부지역에 새로이 파견된 타케 신부가 하논에서 흥로로 본당을 옮기고 본격적인 전교 활동에 나서면서 교안의 영향을 최소화시킨 결과로 보인다. 1904년 초가 되면 교세는 교안 직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양 지역 모두 계속 점진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제주교안이 발생하기 전의 지역별 교민 수가 파악되는 하논본당 관할 구역만 대상으로 하였을 때, 교민들은 대체로 본당이 위치한 하논과 흥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양근·병덕친밭·색다리·녹화지 등 산간 벽지의 화전촌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룬치 지역인 대정과 성읍에는 교민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안 이후에 다소 달라지고 있다. 우선 본당을 중심으로 교민들이 집중되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1902년 6월 이전 본당이 있던 하논과 그 이후 본당소재지인 흥로에 전체 신자의 거의 절반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하논의 경우 교안의 피해를 심하게 받았다.⁷⁰⁾

한편 교안 직전 교세가 강하였던 양근·색다리 등의 지역에는 거의 교민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본당소재지로의 교민 집중 현상은 본당과 떨어진 공소들이 교안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배척받은 결과로서, 교회의 보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교세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1903년 이후 떼미·예촌·울에 등 동남부지역에 새로이 공소가 설치됨으로써 포교 범위가 서서히 본당에서 동쪽으로 확장되어 갔다. 반면 서남부 대정군 지역은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대정은 교안의 진원지로서, 교안 과정에서 가장 심한 피해를 입었고 이후에도 교세의 회복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부지역인 제주군의 경우에는 1901년 당시 제주본당이 있던 읍내, 본당과 가까운

70) “하논은 원래 신부와 교인들만이 사는 곳”, “본래 하논은 작년 난리를 치른 참상이 다른 곳에 비해 더욱 심하여 남자 10세 이상은 도륙당해 남아 있지 않고 여인들이 다소 있을 뿐. 지금 일부 남자가 남아 있는 것은 난리가 지나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부쳐살 곳이 없으므로 부득이 더불어 살면서 품을 파는 사람들”, “1902년 현재 열 집에 불과한 마을”이라는 표현이 당시 기록에서 확인된다(「뒤통문서」(1902-118), 제주교우의 서한).

버랭이·광양동에 교민이 집중되어 있었고, 금악리와 연평리(소섬, 우도) 같은 산촌과 섬 지역에 교민이 분산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민 분포는 제주교안 이후인 1910년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까닭은 교안을 전후한 시기 내내 라크루 신부가 이 구역을 관할하였던 때문이며, 남부지역에 비하여 교안의 피해를 덜 받았던 데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섬의 신자가 많아진 이유는 교안 당시 학살을 피해 일부 교민들이 이곳에 은신하였다가 정착한 결과라 할 수 있다.⁷¹⁾

2) 가족 관계

하논본당 세례대장(1899. 6~1901. 3)에 나타난 교안 직전까지의 신자는 모두 124명으로서, 그들은 상당수가 직계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교안 이후에 와서 더욱 두드러진다. 세례대장(1901. 11~1910. 12)에서 보듯이, 교민 가족 구성원이 같은 날 함께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천주교민의 상당수는 직계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하여 입교하였다. 결국 당시 천주교회는 친족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연령별 분포

세례대장에 보이는 하논(홍로)본당 신자의 연령 분포를 표로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연령별 신자 수 〉

연 령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미상	계
수	교안 이전	22	18	28	14	17	11	8	5	1	124
	교안 이후	73	18	33	28	20	11	6	1		190

교안 이전 전체 신자 가운데 20대에서 40대에 걸치는 청장년층이 59명(47.6%)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이러한 청장년층 남성 위주의 교민 구성은 당시 천주교회가 사회세력화되어 갔던 실정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안 이후 청장년층은 81명(42.6%)으로서, 이전보다 비중이 약해졌다. 그러나 30대 신자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고, 유아기인 10세 미만의 영세자가 73명(38.4%)이나 차지하는 것으로 보건대, 결혼과 출산을 통한 입교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⁷²⁾ 이러한 연령 구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계가족 중심 교회의 성격을 역력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이는 이전의 교회가 사회세력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던 데에서 벗어나 본연의 종교집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71) 1904년 당시 소섬의 영세자는 20명이며, 예비신자는 61명이었다(「위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4년 5월 19자 1904년 연말 보고).

72) 특히 갓 태어난 영아의 유아세례자가 세례대장에 많이 나타나 있음은 이를 증명한다.

4) 성별 분포

교안 이전 하논본당 신자 가운데 남자는 87명, 여자는 37명으로 파악되어, 남자 신자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 특히 남자 신자 가운데 20대에서 40대에 걸치는 청장년층은 42명으로서 같은 연령대의 여자 신자가 17명이었던 데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남성 위주의 교민 구성은, 당시 천주교회가 사회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안 이후에 와서는 남자 96명, 여자 94명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청장년층의 경우, 남자 40명, 여자 41명으로 오히려 여자 신자가 더욱 많다. 이러한 성별 분포의 변화는 연령별 분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 천주교회가 교안 이후 사회세력이 아닌 신앙공동체로서의 종교적 성격을 가지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7. 맺음말

타케 신부는 제주도 하논본당에 부임하기 전에 1898년부터 1901년까지 부산, 진주, 마산 등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사목활동을 하였다. 그는 진주본당 주임신부로 재임할 당시 비라실 공소의 전교회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향촌사회 내에서 교회와 관·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아래의 방침을 전달한 바 있었다.

첫째, 성당은 거룩한 집이니 그 안에 사람을 가두거나 잡아들이지 못한다.

둘째, 신자들이 모여 신부의 글〔牌旨〕을 사스럽게 주고받지 못한다.

셋째, 성당 안에서 수작을 부려 세속의 일을 조사하거나 논의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넷째, 신부의 지시가 없는 일을 비신자들 앞에서 있는 것처럼 하지 못한다.

다섯째, 관청 송사에 관하여 정당한 까닭 없이 천주교 신자와 천주교에 관련되는 일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여섯째, 위에 보인 규식을 회장이 살펴 어기지 못하게 하되,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신부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

일곱째, 이 조목이 내려진 뒤 어기는 자를 회장이 알고도 신부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회장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⁷³⁾

타케 신부 자신도 불량 교인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저의 교우들은 주교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우들이 아닙니다. 저의 진짜 교우들은 착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수상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우로 자처했던 외교인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⁷⁴⁾

73) 동래법관 양대인(타케 신부)이 비라실 두 회장에 주는 유시 서한(「뫼텔문서」 1899-124).

74) 진주 타케 신부가 뫼텔 주교에게 보낸 편지(「뫼텔문서」 1899-245, 1899년 10월 4일).

타케 신부가 진주를 떠나 새로운 부임지인 마산본당에서 사목할 때인 1901년 제주교안이 일어났다. 마산에 있던 타케 신부도 이 사건의 내용을 전해 들었고, 마산 지역의 사회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뮌헨 주교에게 쓴 편지에서 밝히고 있다.

“제주 사건은 이곳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외교인들은 ‘제주에서 사람들이 교우들을 모두 학살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니 우리도 왜 그런 일을 못하겠는가?’라고 서슴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교우들과 예비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이 모든 소문들이 헛소문에 불과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전임지에서의 타케 신부의 사목 방침은 제주도에 부임해서 더욱 강조되었다. 교안 직후 반교회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1902년 ‘양시중 사건’의 처리에도 이전 신부들과는 달리 인내와 자제의 모습으로 대처해 나갔다. 하논보다 넓고 주민 수도 많으며 토착세력이 강한 흥로로 본당을 옮긴 뒤에는 마을 주민들과 접촉이 더욱 많아졌을 것이며, 타케 신부는 더욱 불량 교민에 대한 자체 선별과 관권 처리 방침의 원칙을 고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축교안 이전 제주도에 시행된 원리적 사목방침(김원영 신부의 『수신영약』에 반영된 토착문화 배경 지침)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타케 신부는 제주도에에서의 사목활동을 통해 신축교안 직후 민·교간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했으며, 본당을 흥로로 이전함으로써 본격적인 제주도 산남지역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흥로본당 이전은 “폐쇄적 공간인 하논 분화구에서 열린 공간인 넓은 터전 흥로 마을로의 이동”을 뜻하며, 이는 공간의 이동에 그치지 않고, 폐쇄적이고 배타적 선교에서 문화 적응과 포용의 선교로 전환하였음도 함께 보여준다. 나아가 그는 제주의 자연과 생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본에 있는 선배 포리 신부와 교류하며 식물학 조사 연구에도 헌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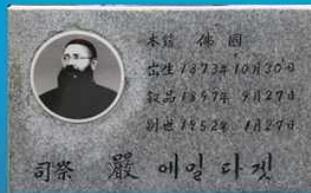
타케 신부의 제주도 사목활동은 교회 내적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교회와 사회의 원만한 만남과 대화라는 외적 선교 측면에서도 교회사적 의의가 높다고 평가된다. 타케 신부의 사목활동은 1909년 제주본당 라크루 신부의 신성여학교 설립과 더불어 지역문화 적응의 선교방식이 적용된 본보기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타케 신부의 사목활동에 대한 교회사적 검토가 더욱 심화되고, 그의 식물학 조사 연구 성과가 제주학을 비롯한 제주문화 연구의 선구적 업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조명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타케 신부의 업적을 중심으로 신축교안을 전후한 시기 상호 이질적인 종교문화의 만남과 갈등, 대화와 소통의 문화사를 탐구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에밀 타케 신부의 식물학 연구 업적과 제주 식물의 가치 전승 방향

김 찬 수 박사((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에밀타케신부의 식물학 업적과 제주식물의 가치전승방향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김 찬 수





왕벚나무에 관한 최초의 기록

- 일본정부 박물관천산과(博物局天産課)의 도쿄 우에노공원 왕벚나무 조사(일본원예잡지 45호, 1900)
- Matsumura의 *Prunus yedoensis* sp. nov. (도쿄식물잡지 15권, 1901)

Cerasi Japonicæ duæ Species novæ.

auctore

J. Matsumura.

Prunus (*Cerasus*) *nipponica*, Matsumura sp. nov.

Arbor magna, ramulis glabris, cortice ladio-nigrescente. Folia juvenilia subrhomboidea v. elliptica utrinque puberula, adulta obovato-v. rotundato-elliptica subito acuminata, basi rotundata interlum cuneata, biglandulosa, utrinque glabra v. parce puberula, duplicato-inciso-serrata, 8-10-costata, stipulis petiolo multo brevioribus, linearibus, glanduloso-fimbriatis. Flores coactanei. Corymbus 3-flori; pedicelli glabri, floribus longiores, bracteis minutis denticulatis; tegmenta interiora oblonga v. obovata glandulosa, intus sericea. Calyx turbinatus, glaber, lobis oblongis acutis, v. ovato-lanceolatis tubo multo brevioribus parce ciliatis; petala anguste obovata v. obovato-oblonga emarginata, vix 10 mm. longa, 5 mm. lata, roseo suffusa; stamina calycis lobis aequilonga; stylus glaber, 9 mm. longus. Drupa ovoideo-subglobo, 6-7 mm. longa, 5 mm. lata, glabra, immatura acuta; putamen osseum glabrum non compressum.

Folia maxima sup. 9 cm. longa, 5 cm. lata. Pedicelli fl. 2 cm. longi, fructif. recti, 14-25 mm. longi.

A *P. incisa*, Thunb. differt foliis majoribus, stipulis minutis petiolis multo brevioribus, pedicellis longioribus bracteis parvioribus, angustatis nec rotundatis, calycis tubo longiore basi acutiore, petalis angustioribus.

Hab. in Japonia media ad septentriones; culminibus montium alteriorum prov. Ugo, monte Chôkaisen leg. S. Okubo et R. Yatabe anno 1887; prov. Uzen, monte Gassan leg. S. Okubo et R. Yatabe anno 1887; prov. Echigo, monte Myôkôsan leg. S. Matsuda anno 1894; prov. Shimotsuke, monte Nantaisan leg. K. Sawada anno 1879; montibus Shiranesan et Konsaitoge (ipse), Chuzenji (ipse) anno 1885, monte Nyôhōsan leg. J. Matsumura et Y. Yabe anno 1901; prov. Shinano, monte Ontake leg. R. Yatabe anno

100

1880, monte Togakushi leg. J. Matsumura et R. Yatabe anno 1884, monte Norikura leg. K. Fujii.

Ois. I. *P. incisa*, Thunb. Arbor parva, ramis subgriseis. Folia plerumque basi cuneata, saepe oblongo-lanceolata, 5½ cm. longa, 27 mm. lata. Flores solitarii, bracteis rotundato-foliaceis parvis, serratis; pedicello flore brevior, curvato, 13-22 mm. longo. Calyx subturbinatus, glaber, lobis rotundatis ciliatis tubo brevioribus; vix 3 mm. longis; petala rotundato-elliptica, emarginata; stylus glaber staminibus aequilongus. Drupa 6 mm. longa, vix 6 mm. lata; putamen osseum, glabrum compressius quam in *P. nipponica*.

Hab. in Japonia media ad meridiem; prov. Sagami monte Ôyama leg. S. Matsuda et J. Matsumura anno 1900, montibus Hakone leg. Y. Yabe anno 1900; prov. Musashi monte Ôtake leg. J. Matsumura et Y. Yabe anno 1900, prov. Izu, monte Amagisan leg. S. Okubo anno 1883; prov. Suruga, ad pedium montis Fuji leg. J. Matsumura et M. Toyama anno 1881.

Prunus (*Cerasus*) *yedoensis*, Matsumura sp. nov.

Arbor magna, ramulis glabris, cortice griseo. Folia juvenilia subtus ad apicem sericea, adulta utrinque glabra, late elliptica, v. ovata, ovalia, oblonga, basi oblique acuta v. subrotundata, biglandulosa, minute subduplicato-serrata, apice acuta v. breviter caudata, 8-17-costata, petiolis pilosis, stipulis laciniatis. Flores praecoces. Corymbus 2-3-flori; pedicelli pubescentes floribus breviores, bracteis cuneatis pubescentibus apice glanduloso-denticulatis; tegmenta interiora obovato-oblonga, utrinque villosa, exteriora late obovato-elliptica margine minute glandulosa. Calyx turbinato-cylindraceus, pubescens, lobis ovato-lanceolatis denticulatis, tubo brevioribus; petala late obovato-elliptica, emarginata sub initio dilute roseo suffusa, dein alba; stylus pilosus. Putamen osseum glabrum, subelliptico-lenticulare, 9 mm. longum, 7 mm. longum. Pedicelli fructif. patentes, subpubescentes.

A *P. pseudo-Ceraso*, Lindl. floribus praecocis, stylo piloso, petiolis pedicellisque plus minus pubescentibus differt.

Hab. in hortis Tokyoensibus ample culta. Patria ignota, ex insula Uchinu, prov. Izu allata esse dicitur.

Where did *Prunus yedoensis* come from ?

1. 오오시마 섬 자생설
Ooshima Island natural habitat theory
2. 잡종기원설 Hybrid origin theory
3. 이즈 반도 발생설 Izu peninsula origin theory
4. 제주도자생설 Jeju island natural habitat theory

제주도자생설

Jeju Island natural habitat theory (Koidzumi, 1913)

- 타케가 채집한 표본을 조사한 결과 소메이요시노의 성상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제주도 발생설 제창
- 1933년 재조사 후 나이도 어리고 큰 나무도 아니었다. 왕벚나무를 발견할 수 없었다(타케나카)

Koidzumi confirmed that the specimens collected by Taquet were identical with *P. yedoensis*, he argued

The trees in Jeju Island are not old and tall. Jeju Island was investigated in 1933, but Somei Yoshino could not be found (Takenaka).

June, 1932.

177

雜 錄

染井吉野櫻の天生地分明す

Prunus yedoensis MATSUM. is a native of Quelpaert!

小 泉 源 一

by G. KOIDZUMI

ソメイヨシノザクラ (*Prunus yedoensis* MATSUM.) は幕末の頃に、江戸染井の花戸より市中に出で、次第に江戸にひろまりしものにして、其栽培の年代は極て新しきものなり、江戸の人此櫻を呼んでヨシノザクラと云へり。蓋し染井の花戸が先づ呼稱せしものなるべし。

ソメイヨシノザクラとは故松村任三先生の命ぜられし稱呼にして、江戸にて竊にヨシノザクラと云へば、此櫻は次和の吉野には皆無なるにも拘らず、恰も吉野の原産の如く聞ゆるを以て改められたるものなり。松村先生は此櫻が東京に出でし頃より、よく御存知にて明治の初年より漸次市中に出るやうになりて、東京帝國大學小石川植物園にも其當時栽培されしもの老木一株ある事も、よく語され。當時の園丁長内山富次郎氏もよく之を語したり。此老木は樹齡五十餘年にして大正元年頃なりしか枯死したり。

ソメイヨシノザクラは大和吉野の原産にはあらざれども栽培櫻として、初て世に出し時に江戸の人々が染井の花戸より聞きて之をヨシノザクラと呼びし事は注意するを要する事なり。

此櫻は、櫻類中にては他に比して、最も形態の特種なるものなれども、之が植物學者の完全なる理解を得るに判りしは、漸く明治三十四年にして、松村先生が *Prunus yedoensis* MATSUM. と命ぜられしを始とす。

此年以前は此櫻の植物學上の位置は充分了解されず、人嘗其特性を認むるに到らざりしなり。明治三十四年漸く人の注意せし頃は、此櫻が世に出て既に三十四年以上を経過せしを以て、當時俄に此櫻の來歴に就き、染井の花戸を詮議せし頃は、染井の古老も嘗死去して之を知るに由なきに到れり。

天下の風説は此櫻は伊豆大島の原産となしたる久しかりしが、大正元年三月予大島に至り調査せしに間島には之を天生せざる事を明にし東京植物學雜誌、第二十六

54 · 濟州島探訪

미·유나무, 생철나무 등.

최초의 소메이 요시노 자쿠라(染井吉野櫻)의 표본(標本)

지금은 고인(故人)인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로 제주도에 장기 체재한 「타케」가 1908년 4월 14일에 조천 윗쪽 해발 600m 즉 관음사(觀音寺) 부근서 한 그루의 벚나무에서 착화(着花)한 1지(枝)를 채취하고 자기의 채집번호 4638호를 붙여서 구주(歐洲)로 보냈었는데 「베를린」대학교수로 장미과(薔薇科) 식물의 대가인 「케네」 선생이 이것은 일본 에도(江戸)에 있는 소메이 요시노 자쿠라(染井吉野櫻)의 1품(品)이라고 동정(同定)하였다.

내년이면 이 산중에 밭아서 길을 잘 못들었다가는 꺾은 나무를 한다. 제주어로는 목고리낭, 똥고리낭, 주래비낭, 새비낭 등 여러(異名)이 많고 도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제주도는 열대(熱帶) 섬이라고도 할만하다.

인공을 가하여 지방의 명산으로 하면 좋겠다.

Crinum Line
일본명(日本名)으로 하야오모토선(薊)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시미즈 타쿠지(小清水卓二; 1888)에 의하여 제정(制定)된 식물분류학상의 1선(線)이다. 이 선은 난회자온도(年輪溫度) 평균 -3.5℃의 등온선과 일치하

庫寶の鮮朝

濟州島案内

附錄 濟州島經營論

東京 隆文館發行

本山彦一 桐生悠々 序文
洪鐘宇 田中次郎
青柳綱太郎 著

족의 거소(居所)는 메이지 다이쇼 쇼와에 이르는 오늘 날까지도 우리나라의 식물학자는 물론 외국학자의 조력을 받아 찾아 나섰지만 전혀 불명인 상태이다. 그런데 그 일족이 제주도에 있다는 설이 나왔다. 그 내력은 제주도 남쪽바닷가 서귀포로부터 산쪽으로 2리쯤 떨어진 곳에 살던 프랑스의 타케란 천주교신부가 본적인 설교보다도 식물채집에 더 몸을 던져 여가만 있으면 그의 종자(從者)와 함께 한라산엘 들어가 식물표본을 열심히 채집하고 이것을 유럽의 학계에 보냈다. 때는 메이지 41년 4월14일 속계의 사람들은 꽃놀이에 취해 있을 무렵 그는 조천(朝天)의 뒷쪽인 해발 6백미터 즉 관음사가 있는 부근에서 한 그루 뽕나무에서 꽃이 붙어 있는 가지 하나를 꺾어 이것을 자기 채집번호인 4638호란 번호표를 붙여서 유럽으로 보냈다. 이것을 베르린대학의 교수로 장미과식물의 대가인 케네선생은 일본 에도에 있는 왕벚꽃나무의 일품(一品)이라고 검정하였다. 다이쇼 2년에 고이즈미(小泉源一)박사는 일본 장미과의 모노그래프를 작성할 때에도 역시 이에 근거하고 있다. 다이쇼 4년 북미의 하버드대학 윌슨교수는 직접 북미 대서양해안에서부터 일본 벚꽃을 살펴보기 위하여 내일, 마쓰무라(松村任三)박사와 만나 왕벚나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던바 박사는 이즈(伊豆)의 오오시마(大島)라고 대답한즉 일부러 가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오오시마사쿠라(大島櫻)가 있고 왕벚나무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왕벚나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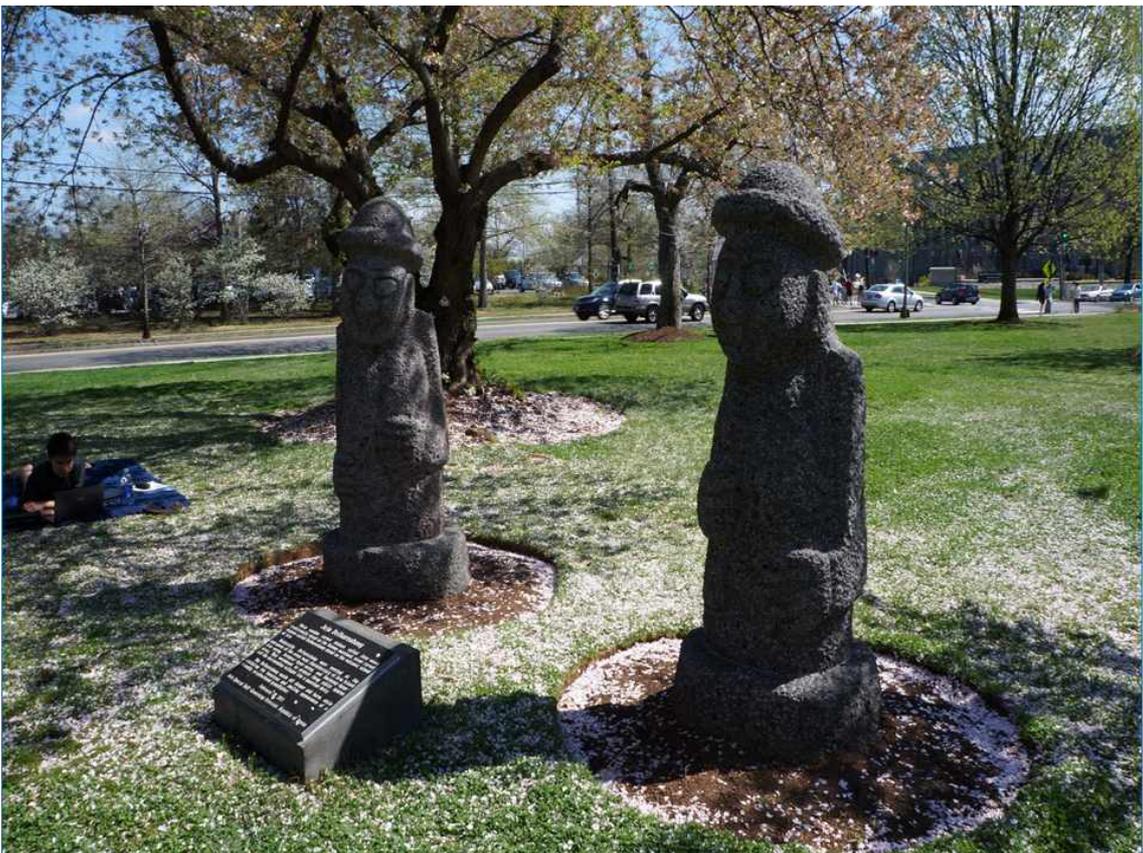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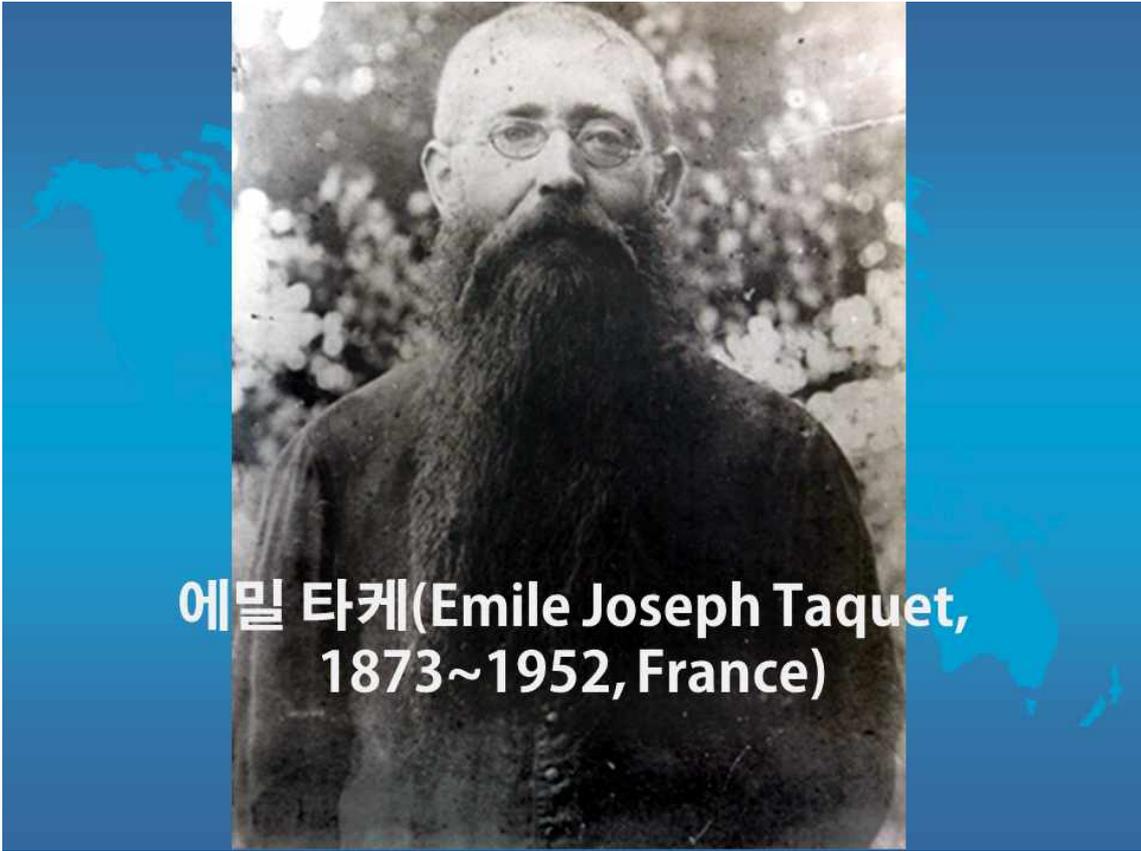
Prunus yedoensis



Prunus yedoensis







에밀 타케(Emile Joseph Taquet,
1873~1952, France)



죽 신부는 한라산에서 꽃핀 벚꽃나무를 꺾어 「캐내」박사에게 보냈더니 638호란 채집번호가 붙은 그 식물은 일본국화와 동일종이라고 감정을 하게 되자 일본학계에 큰 파문을 던지는 바가 되어 일본은 외국학자들까지 동원하여 자기내 본토에서 이 벚나무의 자생지를 찾아봤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하는 수 없이 자기내 국화의 원산지인 제주도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식물의 학명을 찾아보면 신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을 수많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의 공로가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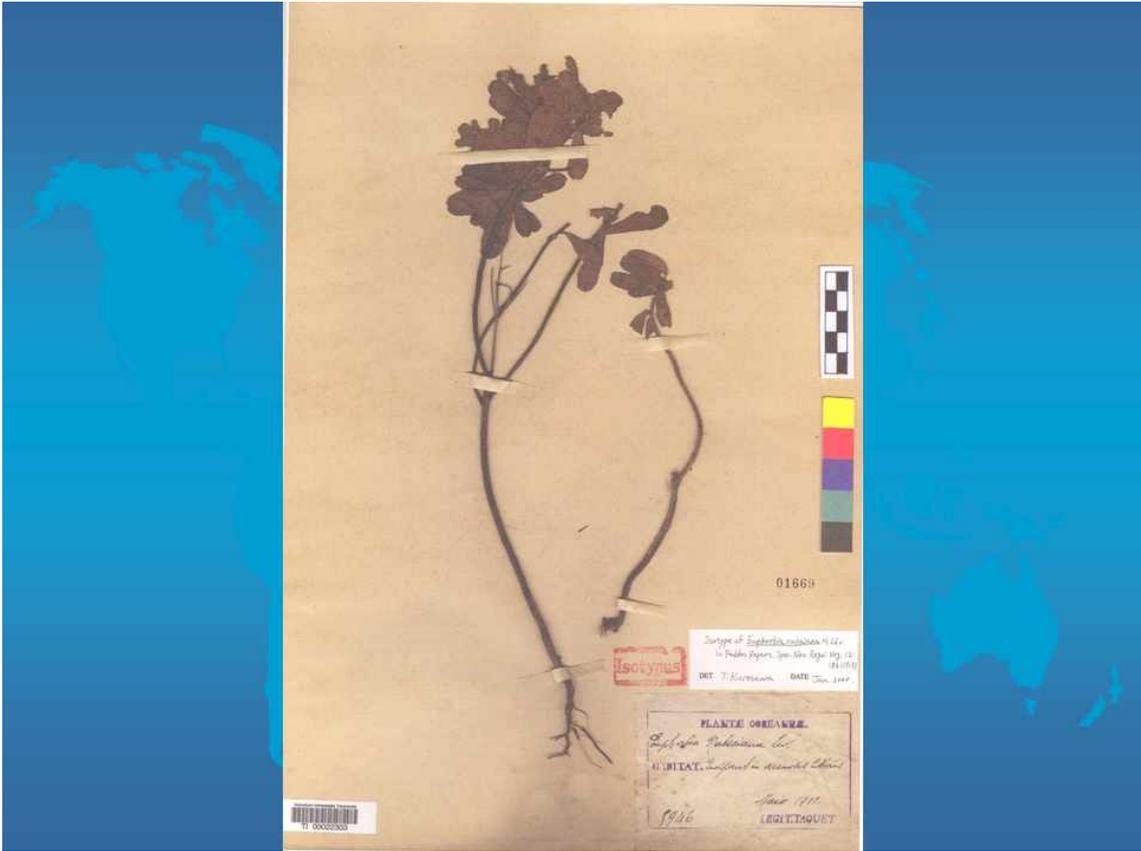
그러나 신부가 가지고 있던 수천의 표본은 홍리(제주)성당에 후진들을 위해 남겨주고 1922년 대구성 유스티노 대 신학교 교수로 부임을 하였는데 그 표본은 애석하게도 어리석고 무식한 할머니의 손으로 뺏김이 되고 말았다. 필자도 공비가 한라산에 있을 때 생명을 걸고 채집한 표본을 모기지사령관 가족들의 손으로 “불쏘시개”를 당한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신부님의 그 가슴아픈 심정은 필자와 비슷한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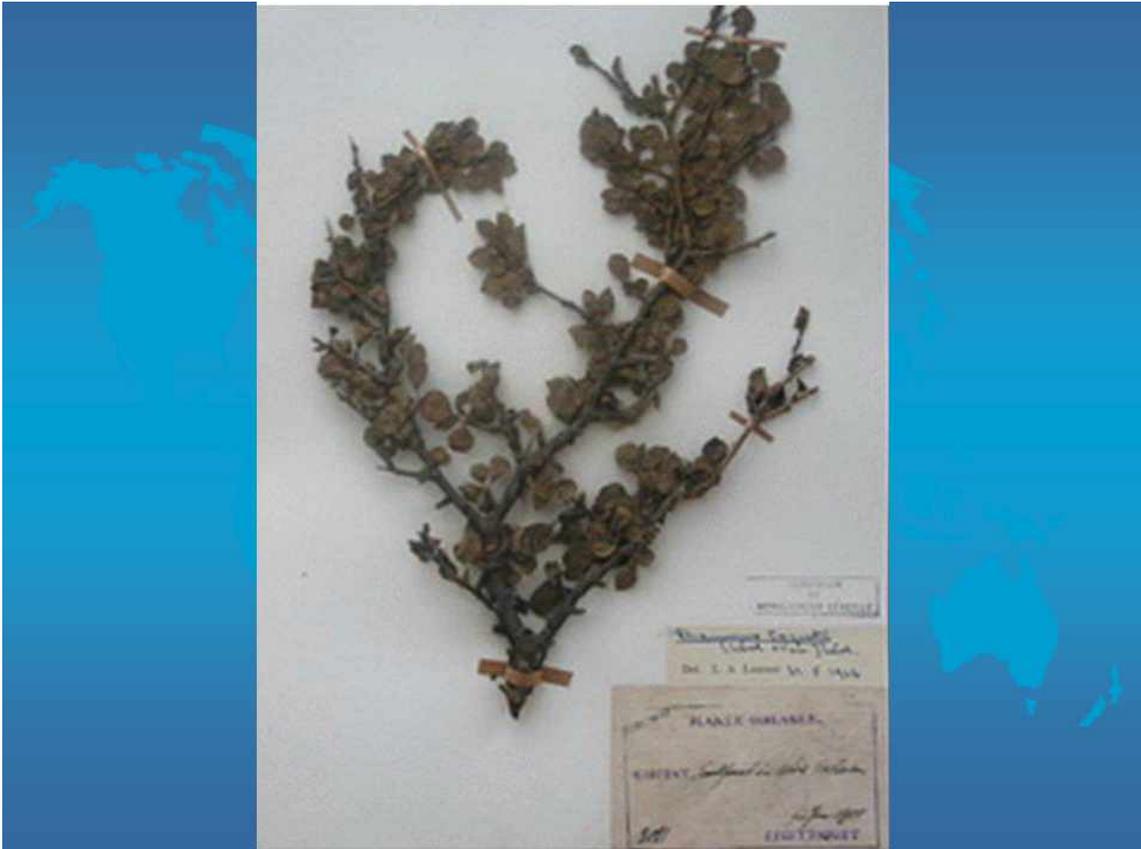
신부는 1940년 7월 전기대신학교의 교장직을 떠난 은거생활에 들어갔다. 전쟁중 불란서는 적성국이라하여 그는 연금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으나 구한직, 일제, 신생한국에 걸쳐 한국에 재래한 셈이 된다.

연금생활에서 벗어날 무렵부터 신부님은 말을 못하게끔 되었지만 그의 생활은 매우 규칙적이었다고 한다. 독서로서 소일하는 매일이었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된다고 하여 수녀원의 꽃밭을 별세하는 전날까지 자기손으로 가꾸었으며 또 고양이를 무척 좋아해서 거실에 많은 고양이를 놓아 길렀으며 신부님이 사냥을 나갈 때는 따라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냥이라는 것이 정원산보를 나갈 때 공기총을 가지고 참새를 잡는 것이지만 말없는 꽃, 그리고 고양이와 말을 잇은 신부님은 그들과 말 이상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노경을 보냈다고 한다.

엄신부님의 생애를 돌아다 볼 때 과연 그는 우리민족의 구령(救靈)을 위한 거룩한 사도이었고 개화된 서구문명을 가져온 문화사절이었으며 또 한국식물의 개척자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필자=서울대생약연구소소원)







Nakai와의 만남

(中井猛之進, 1882~1952)

- ◆ 1913년 제주도 방문(30일간 채집)
- ◆ 1911년 아오모리 fauri 신부 방문(35일간)
- ◆ Taquet 신부의 표본 수만 점을 감정하고
직접 채집한 것을 이용
- ◆ 제주도 및 안도식물조사보고서 완성
(142과 1317종(특산 78종 69변종 포함))



FLORULA OF MT. PAIK-TU-SAN,
OR
A SCIENTIFIC RESEARCH ON THE PLANTS GROWING OVER
THE REGIONS OF MT. PAIK-TU-SAN OR MT.
CHANG-PEI-SHAN, WHICH ELEVATES
ON THE BOUNDARY OF
COREA.

BY
TAKEMURA KAKAI, *Alpharabicus*
THE DIRECTOR GENERAL
OF
CHINA,
M.F. 1911.

PUBLISHED
BY
THE GOVERNMENT OF CHOSŬN,
SEOUL, COREA.
MARCH, 1912.



Willson 과의 만남

(Ernest Henry Wilson, 1876~1930, England)

- ◆ 구상나무가 한국 특산의 신종으로 명명
Abies koreana E.H. Wilson
- ◆ Taquet가 한라산에서 채집한 표본 근거
- ◆ 왕벚나무가 잡종임을 주장한 최초의 학자







확증표본 KOREA: **Quelpaert Island, Hallai-san**, alt, 1000-1900meters, October 31, November 5, 1917, E. H. Wilson(Nos. 9486, type, 9486a); same locality, May, June, July, August, 1907, U, Faurei (Nos. 1517, 1518, 1519, 1520, 1522); same locality, June, July, 1909, **Emile Taquet(Nos. 3263, 3265, 3266)**; prov. South Keisho, Chiri-san, alt. 1000-1840 meters, November 16, 1917, E. H. Wilson(No. 9602).





초기 제주도 식물 연구

- 1905년 다케다, 이치가와, Anderson에 의해 처음 채집
- 1909년 다케다와 나카이에 의해 첫 논문 발표

Plantæ ex insula Tschedschu.

Von

H. Takeda und T. Nakai.

Als Beitrag zur Kenntnis der Flora von Tschedschu-to veröffentlichten wir hiermit eine Aufzählung der von unserm Freunde Herrn Itchikawa vom 10. August bis zum 20. September 1905 gesammelten Pflanzen. Die Insel Tschedschu, die auch unter dem Namen Quelpart bekannt ist, liegt an der Südspitze von Korea und weist den erloschenen Vulkan Hallasan, oder Mt. Auckland auf sein Gipfel, der etwa 2000 m. hoch über den Meeresspiegel emporragt, besitzt ein Kratersee.

Das Material, welches auf diesem vulkanischen Gebiete gesammelt wurde, ist leider nicht reich, und vieles davon ist dazu noch unvollständig, sodass die Arbeit des Bestimmens dadurch sehr erschwert oder selbst verunmöglicht wurde. Es rührt dieser Mangel daher, dass des Sammlers Hauptzweck darin bestand, als Gehilfe des Herrn Anderson, eines amerikanischen Zoologen, Insekten und sonstige niedere Tiere zu sammeln. Die Zahl der Arten beträgt gegen 100, von denen alle Moose und Flechten weggelassen sind.

Jede noch nicht der Flora von Korea bekannte Species ist mit einem Sternchen bezeichnet.

ENUMERATIO PLANTARUM.

- 1) *Dryopteris Thelypteris* (L.) A GRAY. (シロウチ) Mannal (ed. 1.) p. 630; CHRIST, Syn. Filic. p. 297.
Aspidium Thelypteris Sw. Syn. Filic. p. 50.
Neprodium Thelypteris Desv. in Ann. Linn. VI. p. 257; Hook. Syn. Filic. p. 271; YABE in Tokyo Bot. Mag. XVII p. 64.

濟州島並莞島植物調査報告書



朝鮮總督 伯耆寺内正毅殿

朝鮮總督府 濟州島莞島植物調査報告書
理學博士 中井猛之進

大正三年四月二十七日

報告書
濟州島並莞島植物採集調査ノ結果別冊及
報告候也

- **1906, 1907년 Faurie와 Taquet 채집**

- 수만의 표본(900여종) 채집, 구미각국 박물관에 매각

- 영국의 Hooker, Benett,
독일의 Kukenthal, Schlechter, Schleider, Winker,
프랑스의 Leveille, Vaniet, Hanet, Finer,
스위스의 Christ. De Boiseau, Hackel 등
수백 종의 신종 발표

- Nakai Faurie 신부에게 그가 채집한 표본을 보여주
기를 간청했지만 거절

- 러일 전쟁 후 오래지 않아 프랑스와 러시아가 동맹국
이 되었기 때문

- 1911년 모리 조선박물관 시모고리야마와 함께 제주
식물 약 500종 채집

- Nakai에게 그 동정을 부탁했고, 1912년 봄에 그 중
23종의 신종을 발표

- 1912년 6월 Faurie 신부가 갑자기 Nakaid에게 식물원 방문 요청
- 그 당시 일본이 그가 채집하는 것을 반대하며 프랑스의 적국인 독일인에게 연구를 맡겨버린 경향 때문
- Nakai는 8월 아오모리를 방문 표본 검토, 일부는 동경에 가지고 돌아가 다시 연구
- 총독부 산림과의 이시토야가 같은 해 3월 제주도 식물 500여종 채집

- Taquet 신부 매년 술한 위험과 어려움을 겪으며 채집 계속, 구미의 박물관에 계속해서 매각
- 그 스스로 소장한 것도 7000여 점
- Nakai 총독부의 명을 받아 이 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를 환영하였고 그가 수집한 전부를 제출 받음
- Nakai의 술회 : 아무리 최선을 다해 많은 종류의 식물 표본을 수집 했다 해도 이 섬 식물대에 대해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람이 수집이 그 기초를 이루었기 때문

Konrad Hermann Heinrich Christ (H.Christ, 1833-1933, 양치식물학자, 스위스)



Trichomanes stenosphon Christ 제주괴불이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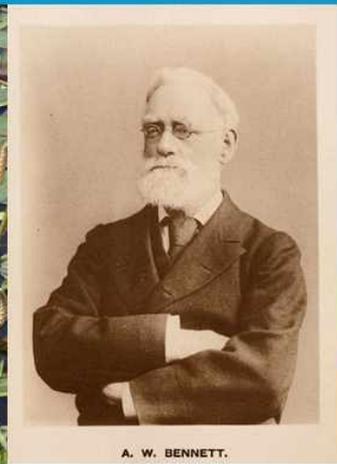
Athyrium coreanum Christ 곱새고사리

Asplenium anogrammoides Christ 들담고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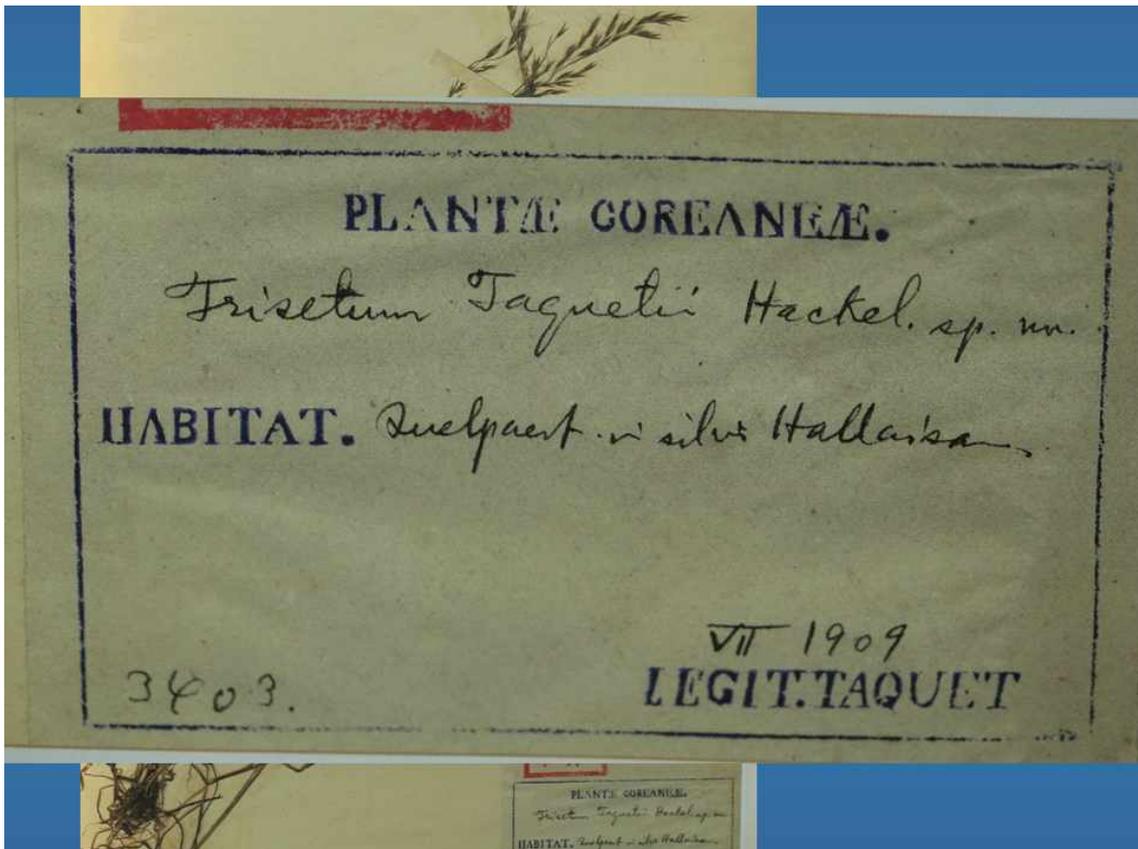
Alfred William Bennett (A.W.Benn., 883-1902, British)

Potamogeton distinctus A.Benn. 가래



Eduard Hackel (Hack. 1850-1926, Austrian)

Trisetum taquetii Hack. 잠자리피



Achille Eugène Finet
(1863-1913, French)



Friedrich Richard Rudolf Schlechter
(1872-1925, German)



한라제비란
Platanthera taquetii Schlechter

**Augustin Abel Hector Lévillé
(1864-1918, French)**



Carex taquetii H.Lév. 왕밀사초
Aneilema taquetii H.Lév. 사마귀풀



Allium taquetii H.Lév. & Vaniot 한라부추



Silene taquetii H. Lév. 애기장구채
Rhamnus taquetii H.Lév. 좀갈매나무



Rosa taquetii H.Lév 돌가시나무



Saussurea taquetii H.Lév. & Vaniot 큰각시취



Camillo Karl Schneider (1876-1951, Austr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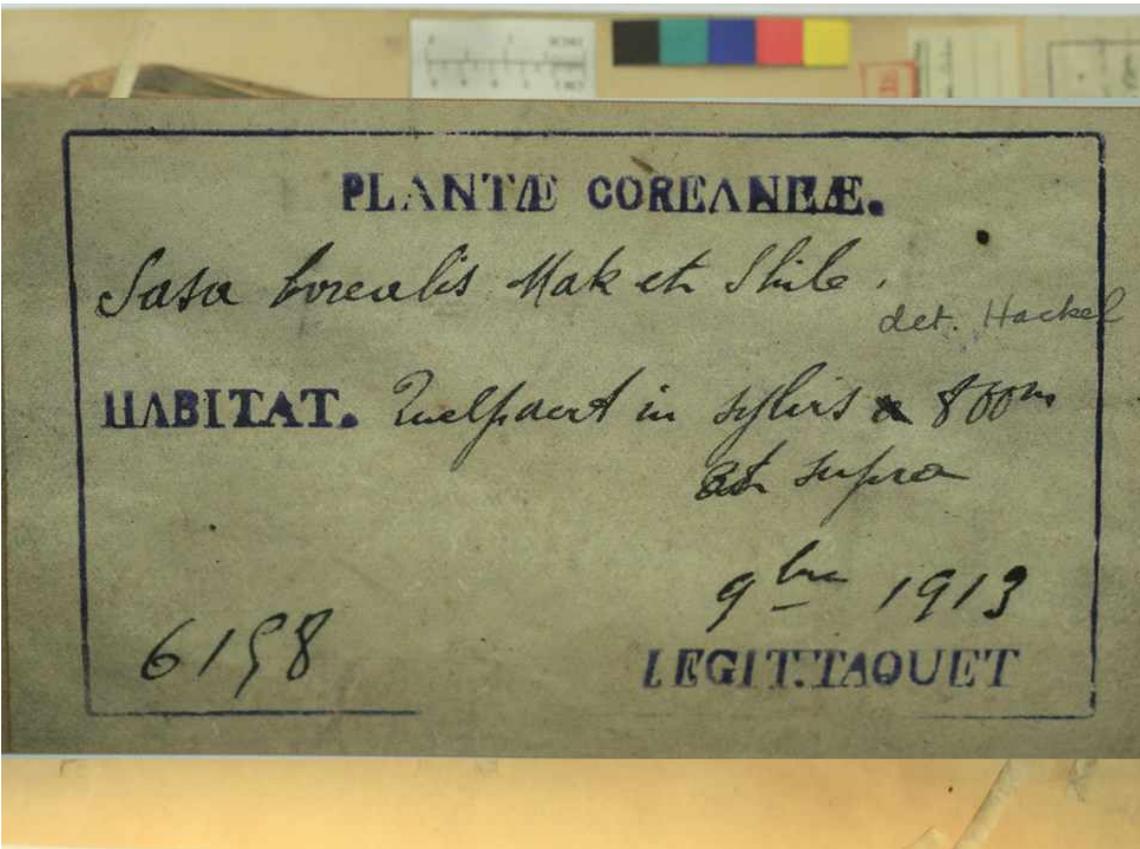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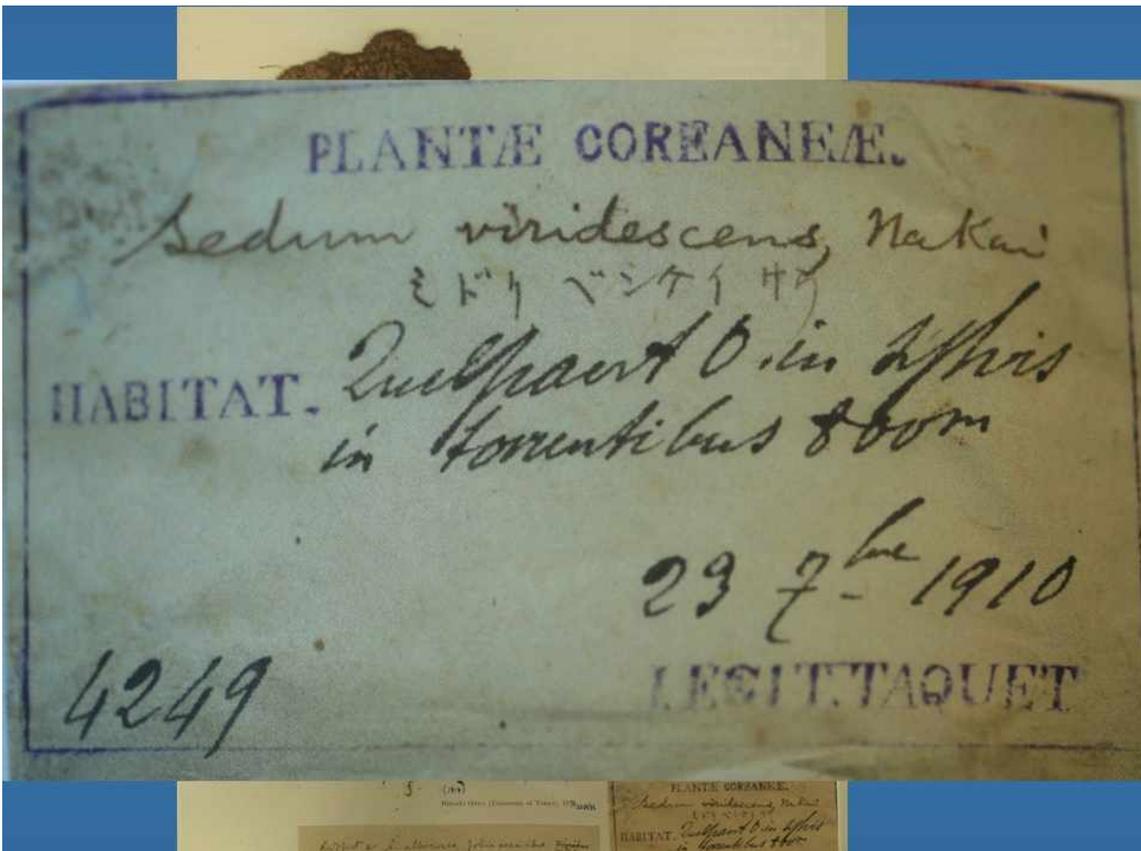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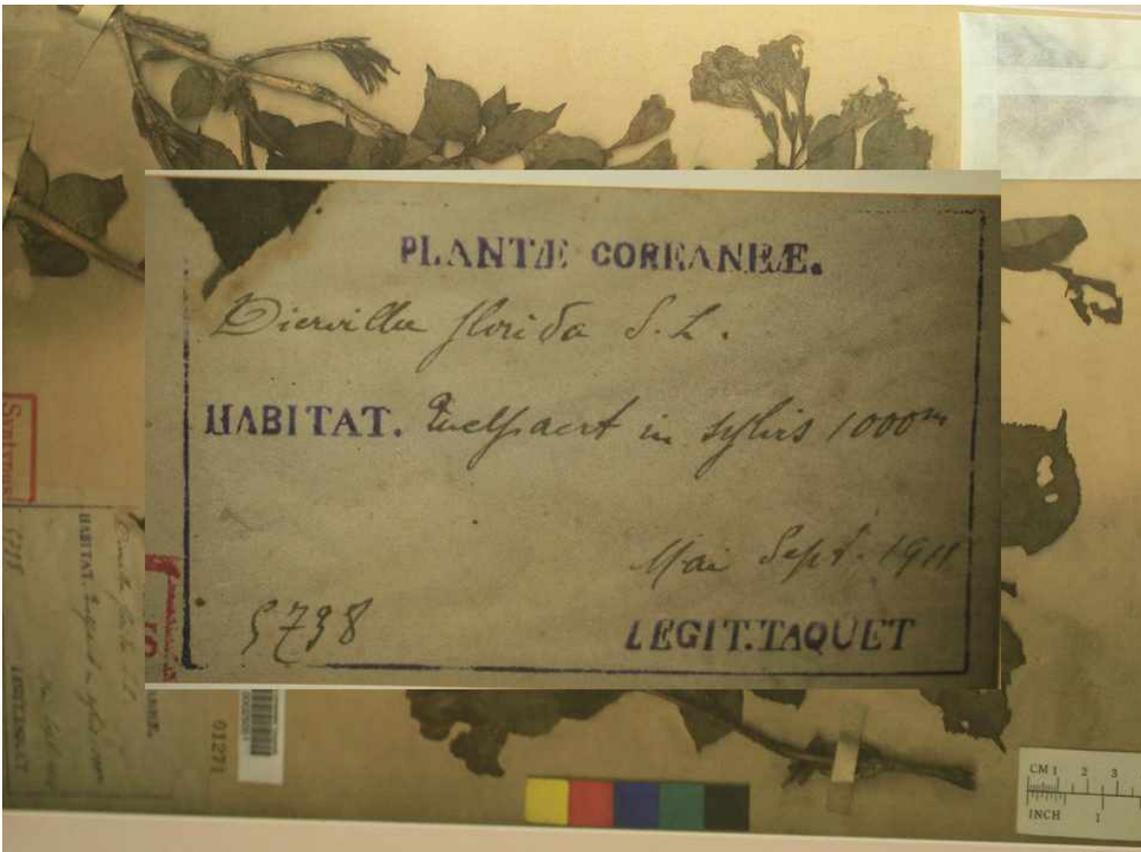
Angelica fallax H. Boissieu 궁궁이
Bupleurum leveillei H. Boissieu 개시호



Takenoshin Nakai
(中井 猛之進 1882-1952)

Rubus hongnoensis Nakai 가시딸기











생태 영성에 비추어 본 에밀 타케 신부의 삶

황 태 종 요셉 신부(천주교 제주교구 복음화 실장)

1. 서문

생태계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생태영성에 대해 정리해 보고 특별히 에밀 타케 신부님의 업적이 지닌 생태 영성적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소고에서는 에밀 타케 신부님의 삶이 지닌 생태 영성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선 그리스도교의 영성이란 무엇이며 특별히 그리스도교 영성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 계시진리인 성경을 기반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 위기에 직면하여 환경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사상에 대한 책임론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증할 것이다. 생태영성을 계시진리에 기반 한 그리스도교 영성의 생태 친화적 가치라 할 때, 계시진리에 따른 그리스도교의 사유전통 자체가 반(反)생태적이라는 교회 안팎의 주장은 그리스도교의 생태 영성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사상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구약 성경의 창조설화와 율법, 역사서와 예언서, 시서와 지혜서 차원에서 정리한다. 이 작업은 전적으로 본인의 광주가톨릭대학 성서신학 석사 논문인 '생태계 위기에 대한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의 책임론에 대한 성서 신학적 고찰'을 요약정리 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핵심 영성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기도'가 지닌 생태적 가치를 이 글에서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담지하고 있는 생태적 가치의 소중한 보화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그리스도교 영성의 생태적 가치를 종합하면서 생태계의 창조적 균형의 파괴는 인간의 사고의 불균형 상태에 기인한다는 측면에서 생태 영성적 사고의 전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어서 에밀 타케 신부의 삶 중에 감굴 나무의 식재, 식물 표본 채집, 왕벚나무 자생지 기록이 그리스도교의 생태 영성에 비추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천주교의 입장에서 생태계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사유전통에 대해 고민해 보고, 그리스도교의 생태 영성이 실제적인 삶으로 실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문

가. 그리스도교의 영성

1) 신학적 전제

인간 본성은 역동적으로 자아실현을 지향한다. 일반적으로 철학적 인간학이 은총의 개입 없는 인간 본성이 '자아실현' 속에 '궁극적 행복'에 도달하는 것을 주제로 삼는다면, 신학적 인간학은 '하느님의 초자연적 은총'이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역동적으로 개입하고 인간이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궁극적 행복'에 도달함을 그 주제로 삼는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는 한 존재자(ens, 개인)가 자신을 성취하게 되는 '선험적인 틀이 본성(natura)'이며 본성은 존재(esse)와 연결되어 있고, 인간의 행위는 선험적 본성을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⁷⁵⁾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25~1274)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개념어를 이어 받으면서도 인간은 이미 완결되어 고정된 본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개방성 속에서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인간 본성은 하느님에 의하여 은총을 통해 자신을 넘어 총만함에 도달한다고 보았다.⁷⁶⁾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은총이란 인간 본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 안에 덕을 낳는 그 자체로 인간과 구별되는 앞선 다른 주체이며 하나의 원리다. 그러나 이 은총은 또한 인간이라는 주체를 전제로 한다. 은총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언명된다. 하느님의 자유롭고 무상한 자비와 사랑 그 자체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창조되지 않은 은총(Gratia increata)'이라 하고, 이러한 창조되지 않은 은총이 인간 안에서 창조적으로 작용하여 내적으로 인간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실제적(實際的) 변화를 가져온 체험 가능한 실재(實在)를 '창조된 은총(Gratia creata)'이라 하였다.

2) 영성(Spiritualitas)

'영적인'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 'spiritualis'에서 파생된 'spiritualitas'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성령과 연관된 종교적 의미로 사용될 때에 '영성(靈性)'의 의미로 쓰인다.⁷⁷⁾

현대의 신학자들이 내리고 있는 '영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발타사르(Hans Urs von Balthasar, 1905-1988)는 영성을 '한 인간의 삶에서 취하는 종교적 또는 일반적인 윤리적 이해에서 나오는 실제적이고 존재론적 기본태도'로 정의하고, 영성은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을 씨앗과 같이 받아들여 성장시키는 것인데, 하느님 말씀을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받아들여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기 때문에 영성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큼 다양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슈트브락(Josef Sudbrack, 1925-2010)은 영성은

75) '행위는 본성을 따른다.'(Agere sequitur esse)

76) '은총은 본성을 전제하며 이를 완성한다.'(Gratia supponit naturam et perficit illam)

77) 가톨릭신학연구실, 「영성신학입문」, 가톨릭교리신학원, 2017. pp. 12-13, 참조.

“인간의 본래적 실존 안에서 인간을 향해 일어난 계시의 적용, 다시 말하여 우리의 구원에 필수불가결하게 제시되고 선사된 것에 의해 충만 된 구체적 삶”이라 하였다. 프랄링(Bernhard Fraling, 1929-)은 영성은 “교회와 교회 구성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 영은 우리를 사로잡아 자신의 카리스마와 기능을 교회 전체 안의 각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아버지와 연결시킨다. 그리스도교적 영성은 믿음을 가진 존재 전체 안에서 일어나는 영의 작용방식이다. 이 작용에 의해 그리스도의 영적 삶은 역사적 상황에 맞추어가면서 우리 안에 구체화된다.”고 하였다. 안톤 로체터(Anton. Rotzewtter, 1939-2016)는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받아 삶의 다양성 안에서 자신을 펼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현대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영성은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⁷⁸⁾

그런데 ‘영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들 속에서 영성이란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양식’ 혹은 ‘인간을 향해 일어난 계시의 구체적 적용’ ‘하느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안에 실현되고 구체화 되는 것이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성은 개인의 개별적 차원에서 언급되지만 발타사르의 정의에서 보듯이 본질적 측면에서 하나의 영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으며 또한 프랄링의 정의에서처럼 개인적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차원에서 영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의 개별적인 영성생활이나 구체적인 영성생활의 실제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영성’이라는 주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영성에 대한 철학적(신학적) 접근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영성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영성신학(Teologia Spiritualis)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성신학은 계시 원리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을 연구하고 그 점진적 발전을 기술하며 그 체험의 구조와 법칙들을 파악하고자하는 신학’⁷⁹⁾이다.

따라서 영성 신학을 포함한 모든 신학은 필연적으로 계시 진리(성경)를 근간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계시 진리에 입각한 사유전통이 반(反)생태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벗어나는 대안적 사유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교회 안팎의 환경론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소고에서는 서구에서 유다-그리스도교의 전통사상이 생태계 위기를 가져왔다는 책임론에 대한 반론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전통 사상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반증하고자 한다.

나. 그리스도교 사유 전통에 대한 비판과 검증⁸⁰⁾

78) 앞의 책, pp. 22-23. 참조.

79) 앞의 책, p. 32.

80) 황태중, ‘생태계 위기에 대한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의 책임론에 대한 성서 신학적 고찰’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7), 참조.

1) 생태계 파괴에 대한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의 책임론

생태계 파괴의 사상적 원인을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에서 찾는 학자들은 창세기 1,26-28의 창조 기사를 들어 유다-그리스도교 사상이 '이원론'과 '인간중심주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의 영향으로 서구인들이 자연을 수단시 하여 정복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자연 과학의 발전과 근대 산업 혁명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가 서구에서 시작되어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⁸¹⁾

반면 생태계 파괴에 대한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의 책임론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반론을 펴는 학자들은 생태계 파괴의 원인을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에서 찾는 주장들이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서구의 역사를 지나치게 일반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⁸²⁾ 또한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 일축하는 학자들은 책임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성경에 대한 편협한 축자주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석이 실제 역사에 적용된 과정에 대한 설명도 타당성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또한 책임론이 근대의 '철학적 인본주의'와 성경의 '신학적 인본주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생태계 파괴에 대한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한다.⁸³⁾

2)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의 책임론에 대한 검증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성경에 뿌리박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 이후에 이 새로운 종교는 유다교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중심 희랍어를 사용하는 헬레니즘 세계로 옮겨가면서 결정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히브리 언명들은 모두 희랍어로 전해졌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이렇듯 서로 다른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종합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종합은 그리스도교의 고유성 안에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종합을 이룬 것으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충돌과 결합의 결과로 비로소 그리스도교가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원체험을 중심으로 유다교의 전통을 재해석하고, 헬레니즘의 언어로 자신들의 체험을 체계화하면서 성장한 종교다.⁸⁴⁾

가) 사상적 검증

81) 존 컵(John B. Cobb, Jr., 1925-), 오이겐 드레버만(Eugen Drewermann, 1940-), 린 화이트(Lynn White, Jr., 1907-1987), 카알 아메리(Carl Amery, 1922-2005).

82) 르네 듀보(René Dubos, 1901-1982), 존 패스모어(John Passmore, 1904-1984).

83) 로빈 도티(Robin W. Doughty, 1941-), 알폰스 아우어(Alfons Auer, 1915-2005).

84) 앞의 글, pp. 18-20, 참조.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은 분명히 '창조하시는 하느님'과 '창조된 창조물'로 구별되는 세계관을 갖는다. 그러나 이 세계관은 결코 '인간'을 '창조물'의 범주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모든 자연 만물과 함께 '피조물'로서 공통된 정체성을 갖는다.⁸⁵⁾

반면 희랍적 사고(헬레니즘)는 신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 만물과 인간을 하나의 통일체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신적인 것들을 포함한 자연 만물이라는 대상과, 대상들 앞에서있는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근원적인 이원론을 극복할 수 없다. 곧 신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은 인간 앞에 놓인 하나의 '탐구대상'이다. 곧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이 '창조주'와 '창조물'을 구별하고 있다면, 희랍 사상은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을 구별 짓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다.⁸⁶⁾

피조물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과 통치권을 오직 창조주 하느님께 귀속시키는 사유체계는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를 불러일으키고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에, 결코 인간을 제외한 창조물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배경이 될 수 없다.

또한 유다-그리스도교의 창조 신앙이 하느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연 속에 갇혀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배제하게 하여, 하느님 외의 모든 것에 대한 신성의 부여를 거부함(脫神性化)으로써, 인간에게서 자연을 신성시하는 마음을 빼앗아, 그 결과로 자연에 대한 착취와 파괴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유다-그리스도교의 창조 신앙이 자연에 정령이 깃들여 있으며 자연 자체가 신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배제시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창조 신앙은 자연 만물이 창조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며 모든 만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신앙이 탈신성화를 가져왔다고 해서 창조신앙이 자연에 인간의 자의적 파괴와 착취를 조장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⁸⁷⁾

그리고 '창조신앙이 인간에게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이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착취하여도 된다는 사상적 바탕을 제공하였다.'는 비판 역시 옳지 않다. 창조신앙 속에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다른 창조물보다 아무리 더 높은 지위를 얻는다 하여도, 인간이 다른 모든 창조물과 함께 공유하는 '피조성(彼造性)'이라는 더 큰 동질감이 확보되며 창조주로서의 하느님과 피조물로서의 인간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을 확보하기 때문이다.⁸⁸⁾

나) 역사적 검증

책임론은 유럽에서 자연 과학의 발전과 산업 사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비록 그리스도교

85) 위의 글, p. 36. 참조.

86) 위의 글, p. 37. 참조.

87) 위의 글, p. 38. 참조.

88) 위의 글, pp. 36-37. 참조.

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적어도 '땅을 지배하라(창세 1,28)'는 성경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여, 기술적인 방법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⁸⁹⁾ 그리고 고대의 다신론, 범신론적 자연 이해와 비교하여 유일신 종교 그 자체가 환경 위기의 원인이며, 유일신적 세계관과 종교관을 대신할 수 있는 범신론적 종교에서 생태계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⁹⁰⁾

9세기에 신성로마 제국이 추구하였던 문예 부흥의 연장선상에서, 11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는 이슬람과의 교류를 통해 고대 희랍의 철학과 이슬람에서 고도로 발전한 자연 과학의 성과들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14세기 이탈리아에서 문예 부흥 운동이 발원하여 15세기 중엽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16세기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다. 특히 이 당시의 문예 부흥은 세속에 대한 종교적인 활동보다는 세속에 대한 희랍 정신의 특성이 강조된 '세속주의의 부활'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⁹¹⁾

세속주의의 부활과 동시에 세계의 보물을 찾으려는 부수적인 총동으로 인하여, 헬레니즘의 특징이었던 탐구 정신이 재등장하였다. 육로와 수로를 통한 지리적인 탐험이 성행하였고, 물질계(物質界)에 대한 탐험은 자연 과학의 부흥을 가져왔으며 현대의 과학적 발명의 터전을 마련해주었다. 과학자들은 성경의 권위에 반론을 제기하며, 보다 정확한 자연 법칙의 공식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실용적 발명을 가능하게 하고 순수 과학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사유와 연구의 길을 닦았다. 이와 같은 연구와 발명에 바쳐진 개인의 탐구 정신이 현대 세계를 열었으며, 헤브라이즘이 경외의 대상으로 섬겼던 '야훼 하느님'과 적어도 고대 희랍 철학자들이 영원한 진리로 여겼던 '궁극적인 것'(神)에 대한 경외감으로부터 유럽인은 서서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극히 현실적 문제인 고통스러운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줄 여러 종류의 기계 발명들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술의 발전으로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치적 상황은 필연적으로 민족 국가 간의 전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절대화된 국가가 세계를 정복하고 부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를 양산할 수 있는 산업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용인되고 가속화된 것이다.⁹²⁾

자연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성경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었으며, 더 나아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 자체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 과학 기술의 발전이 자연에 대한 성경의 지배 명령을 기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이 구약 성경 창세기의 한 구절을 지배명령으로 인식하고 따랐다는 주장은

89)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인간이 땅의 지배를 통해서 하느님의 모상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고에 대해 그리스도교가 신학적 이익을 제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근세 초기 이래로 자연을 희생하여 인간 생명을 절대화시키는 작업에 신학과 교회와 신심이 결정적으로 협력하였다고 주장한다.

90) 앞의 글, p. 40, 참조.

91) 위의 글, p. 41, 참조.

92) 위의 글, p. 42-43, 참조.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이미 종교적 신앙을 상실한 근세의 정신이 자연을 착취하는 정당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오랜 습관에서 구약성경의 첫 장에서 손쉽게 하나의 구절을 찾아 축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악용했다'는 것이 더 적절한 설명일 것이다.⁹³⁾

다. 그리스도교의 생태영성

1) 창조 신화의 생태학적 의미

가)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소유권 포기

구약성경의 자연관은 현대의 인류에게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소유권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생태계 위기에 빠진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다시 찾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의 조화와 평화의 길에 전적으로 순응하려는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다.⁹⁴⁾

생태계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생태계는 인간의 관심사를 초월하여 그 자체로 숭고한 가치를 지닌다. 모든 창조물은 하느님 은총의 흔적이며 하느님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다-그리스도교적인 신관과 자연관이 사라졌을 때, 생태계는 무미건조한 물리·화학물질이거나 유기체로 전락하게 되고, 주체인 인간 앞에선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결국 생태계에 대한 무분별한 활용이 거리낌 없이 자행된다.⁹⁵⁾

현대인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신에게 생태계를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럴만한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다. 하느님 앞에 인간이 지금까지 행사해 왔던 생태계에 대한 주권(主權)을 다시 반환할 때,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의 창조 질서의 균형은 회복되고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⁹⁶⁾

나) 인간과 생태계의 동질성 자각

생태계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신앙은 그 자체로 인간이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인간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같은 운명 공동체인 생태계를 보살피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곧 인간이 창조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느님 앞에서 자연 만물과 같은 창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 이외의 자연 만물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⁹⁷⁾

93) 위의 글, p. 43, 참조.

94) 위의 글, p. 61, 참조.

95) 위의 글, p. 61, 참조.

96) 위의 글, p. 62, 참조.

생태계의 파괴는 창조하는 하느님의 개념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오직 인간과 인간 앞에 놓인 우주 만물만이 존재한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히면서 시작된 것이다. 더구나 모든 개념과 가치들이 이성의 작용에 따른 결과물이라 단정한 채, 인간의 이성이 신적인 것까지 포함한 모든 만물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만물의 척도'라고 여기면서, 만물은 인간 이성 앞에 인간을 위한 소모 자원이요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⁹⁸⁾

따라서 인간이 지닌 '하느님의 모상성'을 이유로 인간이 생태계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위치와 특권을 차지함을 강조하지 않고, 인간이 생태계에 대해 지니고 있는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인간 역시 '창조물'이라는 성경의 인간관을 회복시킴으로써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하느님의 '모상성'에 치우쳐진 불균형 상태가 극복되고 인간의 '피조성'이 자각될 것이다. 이로써 생태계에 대한 존중의 정신과 '형제애'가 회복될 것이며, 결국 생태계의 회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⁹⁹⁾

다) 생태계 회복으로서의 구원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곧 인간이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지 않았을 때, 인간만 고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 생태계가 황폐해 진다는(이사 24, 3-6)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간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인간만이 아니라 생태계도 본래의 생명을 회복한다는(이사 11,6-8), 공동 운명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¹⁰⁰⁾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만민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마르 16, 15)¹⁰¹⁾ 명하고 있으며, 바오로 사도 역시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며 구원된 인간을 고대하고 있다(로마 8,22)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에 있어 '구원'이란 우선 인간이 회개하여 하느님을 찾는 것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통해 죄(혼돈)에 물든 생태계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다.¹⁰²⁾

2) 계약과 율법의 신학이 지니는 생태학적 의미

가) 하느님의 종이요 창조물의 형제인 인간

97) 위의 글, p. 62, 참조.

98) 위의 글, p. 62, 참조.

99) 위의 글, p. 63, 참조.

100) 위의 글, p. 64, 참조.

101)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 대상을 모든 창조물(πάση τη κτίσει)로 확대하고 있다.

102) 앞의 글, p. 64, 참조.

유다-그리스도교의 경전인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의해 율법을 받았고 이를 지켜야만 한다는 신학을 전개함으로써, 인간이 생태계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하느님과 주종 계약 관계 안에서 지상의 삶을 영위하는 하느님의 '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¹⁰³⁾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에 있어 인간의 지상에 대한 관리는 하느님의 '선택'과 '계약' 그리고 '율법'의 신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종'으로서 그분에게 위임 받은 소임인 것이다. 이렇듯 율법서는 인간이 땅에 대한 '지배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내려와 하느님께서 알려 주신 삶의 지침인 율법에 충실히 따르는 하느님의 종으로서,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다.¹⁰⁴⁾

나) 선물로서의 땅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자신들이 땅을 갖기 이전부터, 다른 이들의 땅을 스스로 정복하고 자기들의 소유로 한다는 사고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정복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받음으로써 획득되는 것이었다. 특히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모든 짐승의 만배와 첫 소출뿐 아니라, 만아들까지도 하느님의 것이라는 규정들(레위 27,26),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소작인임을 자각하는 행위였다. 특히 희년(禧年)의 규정(레위 25,8-10)은 그 누구도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명확히 드러내 주고 있다. 곧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땅의 실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사거나 파는 것은 다름 아니라 소출을 거둘 횃수를 사고파는 것이었다(레위 25,16).¹⁰⁵⁾

따라서 유다-그리스도교의 전통사상은 무분별한 영토의 확장을 위한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전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분별한 남용을 일삼고 있는 현대의 인류에게, 땅에 대한 전적인 착취와 무분별한 활용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땅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생존을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명확한 계명의 원칙에 따라 선행되어야 할 선물이라는 사고를 심어줌으로써 생태계의 파괴를 막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¹⁰⁶⁾

다) 자원의 공동 소유 사상

율법서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무분별하게 채우기 위하여 낭비하며 사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느님 앞에 바르고 정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율법은 인

103) 위의 글, p. 71, 참조.

104) 위의 글, p. 72, 참조.

105) 위의 글, pp. 72-73, 참조.

106) 위의 글, p. 73, 참조.

간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의 안녕과 평화도 추구하고 있다(탈출 34,26; 레위 19,19; 27,26).¹⁰⁷⁾

안식일(安息日) 규정은(탈출 31,15-17) 인간뿐 아니라 동물까지도 힘든 노동으로부터 해방 시키기 위함이었다(신명 5,12). 이는 인간이 땅을 경작하는 노동 행위가 분명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안식년(安息年) 규정은 여섯 해만 소출을 거두게 하고, 일곱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수확한 후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도 안 되며,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도 따먹을 수 없다고 말한다(레위 25,4-5). 이는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남종과 여종, 그리고 품팔이꾼과 몸 붙여 사는 거류민들과 나누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땅에 사는 짐승과도 땅의 소출을 나누기 위함이었다(레위 25,7). 이러한 안식년 규정은 인간이 행하는 땅의 경작이 분명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땅에 대한 공동 소유의 사상이 잘 반영되고 있다. 희년 규정(레위 25, 8-16)은 야훼의 뜻에 따라 분배된 땅의 질서를 오십년 마다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써, 하느님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선물로 주신 땅의 본래의 목적을 되살리고 있으며, 생존의 수단인 땅의 편재를 막음으로써 인간 사회의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자원을 모두가 평등하게 활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¹⁰⁸⁾

따라서 유다-그리스도교의 전통사상은 '땅'으로 대변되는 모든 자원은 인간뿐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하느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자원은 언제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건전한 생명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또한 배분된 자원은 창조 질서에 맞게 가꾸고 돌봐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⁹⁾

이러한 유다-그리스도교의 전통사상은 특정한 지역이나, 혹은 특정한 국가, 더 나아가 한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생태계가 함부로 정복되며 착취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자원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선물로 부여된 것이라는 사상을 전파함으로써, 생태계의 정복과 착취, 그리고 그에 따른 부의 편재에서 오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게 할 것이고, 현대의 인류가 공생의 길을 찾고,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 활동을 위해 자원을 선용하는 생태계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¹¹⁰⁾

3) 신정(神政)의 신학이 가지는 생태학적 의미

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느님 중심의 역사관

107) 위의 글, p. 73, 참조.

108) 위의 글, pp. 73-74, 참조.

109) 위의 글, p. 74, 참조.

110) 위의 글, p. 74, 참조.

역사서와 예언서는 인류가 오직 진화와 발전의 길만을 걸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퇴보와 타락의 길을 걸어 왔음도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발전과 번영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오히려 인간을 죽음과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¹¹¹⁾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풍요와 번영만을 추구하며 풍요의 신에게 번제물을 바치면서도 자신들의 삶이 타락해 가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결국 멸망과 유배를 겪게 되면서 지난날 풍요와 번영을 추구했던 삶의 태도가 오히려 자신들을 고통과 파멸의 길로 이끌었음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께서 주신 올바른 삶의 길에서 이탈해 있었음을 뒤늦게 뉘우치게 된다. 이는 오직 인류의 진화와 발전을 위해, 그리고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쾌락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지만, 자신들의 그러한 노력이 오히려 인류의 파멸을 앞당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현대인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¹¹²⁾

따라서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라는 착각 속에서, 오직 인간 사회의 발전과 풍요를 주는 길이 ‘좋은 길’이라는 사고 속에 매몰되어 있는 현대의 인류에게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의 신정(神政)의 역사관은 역사 속에서 다시 ‘올바른 길’을 추구하도록 이끌 것이다. 인간의 역사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역사를 하느님 중심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인간은 역사 속에서 ‘풍요의 추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역사 속에서 발전과 풍요가 아니라 ‘올바른 길’을 추구하게 될 때에, 비로소 생태계를 도전과 정복에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고를 극복하게 되고, 생태계와의 조화와 상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¹¹³⁾

나) 인간의 역사가 아닌 생태계의 역사

역사에 대한 인간의 주도권의 포기는 또한 역사를 오직 인간만의 역사로 바라보지 않고 생태계 전체의 역사로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 준다. 역사의 주재자를 창조주 하느님으로 상정할 경우 인간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모든 창조물의 운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사서와 예언서들은 인간의 역사와 땅의 역사, 혹은 생태계의 역사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인간이 하느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인간뿐 아니라 땅까지 황폐하게 되어 소출을 내지 않으며, 다른 생명체들까지 생명을 잃게 된다(2역대 7,21-22; 예레 34,22; 아모스 4,9; 말라 1,3). 때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깨우쳐 주기 위해 자연의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시고(시편 78,44-48), 자연을 황폐화시킴으로써 인간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이끄신다(1열왕 9,8-9).¹¹⁴⁾

따라서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은 역사를 오직 인간의 것으로만 보지 않고 하느님과의

111) 위의 글, p. 83, 참조.

112) 위의 글, p. 83, 참조.

113) 위의 글, pp. 83-84, 참조.

114) 위의 글, p. 84, 참조.

관계성 안에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완성으로 이끄는 생태계 전체의 구원사가 된다. 이러한 사유 전통은 오직 인간의 역사에만 관심을 기울인 채, 다른 창조물의 역사와 생존은 등한시함으로써,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온 현대의 인류에게 창조된 모든 창조물은 하느님 구원사의 주체들로서 인간과 함께 하느님에게로 이끌리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고, 인간뿐 아니라 다른 생태계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게 할 것이며, 인간이 역사를 펼쳐감에 있어서 생태계의 파괴보다는 생태계의 보존과 회복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다.¹¹⁵⁾

다) 정복과 발전의 역사관 극복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이 가지고 있는 신정(神政)의 역사관은 물질 숭배를 극복하게 하고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 줄 것이다. 인간이 역사를 하느님 중심에서 바라보고, 또한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견지할 때, 인간은 '맹목적 전진'보다는 '회복'을 그리고 '발전'보다는 '절제'를 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¹⁶⁾

현대인은 땅에 넘치는 재화가 인간에게 풍요를 약속하며, 대량의 무기와 첨단 병기들이 자신들의 평화와 안녕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지만, 성경은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으며, 군마와 병거가 즐비한 땅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이렇듯 비열해지고 천박해진 인간을 용서하지 말 것을 하느님께 청하고 있다(이사야 2:7-10). 또한 현대인들은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부를 증대시키고 행복을 누리려 하지만, 성경은 빈 터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가는 자들이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다(이사 5,8).¹¹⁷⁾

이렇듯 유다-그리스도교의 경전인 구약성경은 인간이 풍요와 쾌락을 쫓게 되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하느님의 창조 질서와 하느님의 통치 질서에 순응하며 살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사상은 극단적인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오직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며, 생태계의 무분별한 착취를 통해 필요이상의 재화를 쌓고, 온 인류와 생태계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가공할 무기를 축적하고 있는 현대인이 발전과 풍요를 추구하기보다 생태계 전체와의 조화를 위한 절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파괴된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¹¹⁸⁾

4) 정의와 지혜의 신학이 가지는 생태학적 의미

115) 위의 글, pp. 84-85, 참조.

116) 위의 글, p. 85, 참조.

117) 위의 글, p. 85, 참조.

118) 위의 글, p. 85, 참조.

가) 생태계에 대한 경외(敬畏)의 회복

시편과 지혜 문학의 책들은 인간의 참다운 지혜는 창조된 생태계에 대한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태계를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한 앎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곧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에 대한 앎이 없을 때, 인간은 어리석은 길로 접어들게 되고 불행을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¹¹⁹⁾

유다-그리스도교의 전통사상은 인간과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살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느님을 온전히 파악 할 수 없기에 그분을 경외(두려워) 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²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상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자동 기계와 같은 어떤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다스려지는 알 수 없는 신비이며 경외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는 분석과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운 하느님의 놀라운 작품으로서 찬미와 경탄의 대상이었다.¹²¹⁾

이러한 유다-그리스도교의 전통사상은 유물론적 세계관 혹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생태계의 물리 법칙과 화학 법칙을 찾아내어 인간의 삶에 풍요와 효용을 확보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생태계를 이끄는 자유롭고 신비한 힘에 대한 사유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생태계를 놀라움과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생태계에 대한 무분별한 파괴를 절제하도록 할 것이다.¹²²⁾

나) 무지에 대한 깨달음

시편과 지혜 문학은 창조주이시며 주재자이신 하느님의 전지전능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욥 38-39장). 현대인은 인간의 지식이 최고도에 이르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통제 능력이 증대되는 것을 발전이라 여기며 그것을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제시하지만, 시편과 지혜 문학은 인간의 거만한 눈이 낮아지고 사람들의 교만이 꺾여 하느님께서 주권자이심이 드러나는 세상이 바람직한 미래임을 전한다.¹²³⁾

사실 생태계에 대한 전적인 변형과 조작은 생태계를 창조한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생태계에 대한 한정된 지식과 제한된 능력을 가진 인간이 생태계에 가하는 변형과 조작은 원상태로의 '복구'와 '회복'을 전제하지 못한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변형시키고 조작한

119) 위의 글, p. 96, 참조.

120) 위의 글, p. 96, 참조.

121) 위의 글, p. 96, 참조.

122) 위의 글, p. 97, 참조.

123) 위의 글, p. 97, 참조.

생태계를 복구할 만한 지식도, 회복시킬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계에 대한 전적인 변형과 조작은 오직 전지전능(全知全能)한 분에게만 합당하고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시편과 지혜 문학은 그 무엇보다 인간이 하느님의 전지전능 앞에 무지무능(無知無能)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현명한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¹²⁴⁾

생태계에 대한 한정된 지식과 한정된 능력밖에 소유하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한없이 초과하여 생태계에 변형과 조작을 가함으로써 생태계를 ‘복구’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끌고 있는 인류는 뒤늦게 생태계에 대한 무분별한 변형과 조작을 통해 결국 생태계와 생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 인간 생명 또한 복구와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따라서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이 간직하고 있는 자신의 무지(無知)를 깨닫는(知) 지혜는 교만으로 눈이 먼 현대의 인류에게 알 수 없는 신비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함으로써 이성적 사유와 종교적 사유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이러한 균형은 생태계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겸손과 경외로 이끌어 생태계의 무분별한 파괴를 막도록 할 것이다.¹²⁵⁾

다) 정복을 위한 지식에서 순응을 위한 지혜로

시편과 지혜 문학은 하느님의 뜻에 역행하기보다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임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현세적 이익과 풍요를 좇아 하느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이는 일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세속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풍요와 행복은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진정한 행복은 현세적이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 곧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¹²⁶⁾

그렇기 때문에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의 경전인 성경은 결코 생태계의 환경을 조작하고 정복하기 위한 지식의 축적을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태계를 다스리는 하느님의 뜻을 찾고, 두렵고 조심스런 마음으로 하느님의 이끄심에 순응하는 지혜를 강조한다. 이러한 사고는 생태계에 대한 지식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생태계에 대한 활용의 범위를 무한정 넓히려는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준다. 또한 생태계의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인간 지식 축적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게 한다. 곧 지식의 축적이 하느님에 대한 앎을 심화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자원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분명 지식의 축적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게 됨을 일깨우고 있다.¹²⁷⁾

따라서 올바른 길을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않은 채, 지식의 축적에만 매달림으로써, 자신들

124) 위의 글, p. 97, 참조.

125) 위의 글, p. 98, 참조.

126) 위의 글, p. 98, 참조.

127) 위의 글, pp. 98-99, 참조.

이 힘겹게 쌓아올린 축적된 지식의 결과로 전쟁과 환경의 파괴를 통해 스스로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의 사유는, 먼저 알려하기 전에 왜 알려고 하는 지를 물어야 하며, 참된 지혜만이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수단이 됨을 깨닫게 하여, 많이 알려하기 전에 먼저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가 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유다-그리스도교의 전통사상은 인간의 지적 탐구 활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축적된 지식의 무분별한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여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도록 할 것이다.¹²⁸⁾

5) '주님의 기도(Oratio Domini)'에 담긴 그리스도교 생태영성

구약의 창조설화와 창조설화를 포함한 율법 그리고 역사서와 성문서 시서와 지혜서를 통해 구약성경이 지닌 생태영성의 가치를 살펴 본 것과 같이 4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간과 요한 묵시록 전체를 조망하며 신약성경이 지닌 생태영성의 가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약속과 기다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특별히 복음은 구원의 성취를 알리는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마태오 복음서는 산상설교에서 요약하고 있으며, 산상설교의 중심에 주님의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¹²⁹⁾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해 주신 기도로 가장 오래된 기도이자 테르툴리아누스(Quintus Septimius Florens Tertullianus, 155년 경 - 240년 경)는 '주님의 기도가 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 했다.¹³⁰⁾ 성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25 - 1274)는 성경의 핵심인 주님의 기도를 "가장 완전한 기도"라 했다.¹³¹⁾ 성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 - 430)는 성경의 모든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 수렴되고 주님의 기도에서 모든 기도가 연유한다고 하였다.¹³²⁾ 따라서 신약성경의 생태적 가치를 살펴보는 대상으로 '주님의 기도'를 채택하고자 한다. '주님의 기도'가 지닌 생태적 가치는 곧 복음서가 지닌 생태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의 기도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전승에 따라 교회의 전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교회의 가장 뛰어난 기도이다. 초기 교회 공동체들은 주님의 기도를 '하루에 세 번' 바치며 주님의 기도를 교회 자신의 기도로 받아들이고 생활화했다.¹³³⁾ 또한 현재에도 주님의 기도는 성무일도의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그리고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인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그리고 성체성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¹³⁴⁾

이렇듯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 생활의 중심에 있기에 곧 '주님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영성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주님의

128) 위의 글, p. 99, 참조.

12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교회교리서」(개정판), 2014, 2763항. 이후 인용은 약어 'CCE'를 사용하고 항의 번호를 명시한다.

130) CCE, 2761, 참조.

131) CCE, 2774, 참조.

132) CCE, 2762, 참조.

133) CCE, 2767, 참조.

134) CCE, 2776, 참조.

기도'가 지닌 생태적 의미를 찾는 것은 그리스도교 영성이 지닌 가장 일반적이고 실천적인 생태적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주님의 기도문은 마태오 복음 6장 9-13과 루카복음 11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교회는 이 중에 마태오 복음의 것으로 기도문을 채택¹³⁵⁾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마태오 복음의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통해 주님의 기도의 각 구절에 대한 의미를 해석한 후, 주님의 기도문 각 구절이 지닌 생태 영성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ἡμῶν(우리) Πάτερ(아버지) ἐν(~에) οὐρανοῖς(하늘)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계시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¹³⁶⁾ 하느님 아버지라 기도할 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의 친교에 초대된다.¹³⁷⁾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흠송하는 것은 외아들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심으로써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며 세례를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¹³⁸⁾

'아빠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다.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낳음을 받은 존재이고 그 아버지에 생명의 기원을 둔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λόγος)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창조된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성 안으로 초대된다. 하느님의 창조의 은총을 입지 않은 피조물은 없다.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있음 자체이신 하느님에게로부터 기원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진화하도록 창조하셨다.' 과학이 필연의 법칙에 따른다면 창조는 우연의 법칙에 따른다. 생명의 출현은 '우연'이었다. 우주의 창조 차체와 최초의 생명의 출현과 또한 돌연변이의 출현은 필연의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언제나 그것은 알 수 없는 우연한 일, 곧 창조였다. 생명은 하나의 기원에서 출발하여 모든 생명의 창조원리인 우연에 의해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겨나고 이후 '용불용설'이나 '적자생존'과 같은 필연적 법칙에 따라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진화되었다. 인간생명 역시 약 30-40억 년 전 하나의 원핵생물(Prokaryotes)에서 시작하였다. 약 5억 년 전에 식물과 동물 등으로 생물군이 다양하게 진화되었다. 한 때 물고기였던 인간은 3억 년 전에 물 위로 올라와 양서류가 되었고, 2억 년 전에 포유류가 되었으며, '사람 속'은 230-240만 년 전에 출현했고, '옛 인류'는 40만-25만 년 전에 나타났으며, '현생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진화하여 최근이라 할 수 있는 5만-1만년

135) CCE, 2759, 참조.

136) CCE, 2780, 참조.

137) CCE, 2780, 참조.

138) CCE, 2782, 참조.

사이에 나타났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과 동물은 하나의 창조적 기원에서 시작되어 번성하였다. 따라서 모든 생명의 아버지는 하느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우리’라는 말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의미한다.¹³⁹⁾ 곧 ‘우리 아버지’라 할 때 그리스도를 통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곧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신 것이다.¹⁴⁰⁾ 문법적으로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관계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한 성령을 통하여 한 성부와 친교를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된다.¹⁴¹⁾ ‘우리’라는 말은 모든 개인주의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¹⁴²⁾ 따라서 하느님 사랑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우리의 기도에도 국경이 없어야 한다.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이러한 배려 속에 우리가 감히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런 폭넓은 사랑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¹⁴³⁾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있는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인식하게 된다. 하느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인간은 더 이상 쪼개지고 대립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하나인 세상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

이러한 영적인 새로운 자각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재정립시켜 준다. 곧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아버지께 근원을 두고 있는 한 형제자매이며 또한 동시에 한 가족으로서 공동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깨달음이다. 성령 안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가 다른 피조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대상화하고 마음대로 착취하고 파괴하고 조작하고 변형시킬 수 없다. 주님께서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로 계시하시고 성령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늘 기도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든 피조물을 형제자매인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실천적인 삶으로 초대하신 것이다.

‘하늘에 계신’은 장소(공간)가 아니라 존재 양식을 가리킨다. 이는 멀리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임을 드러낸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의인들의 마음에 계시다는 의미로 알아듣는 것은 올바른 이해이다. ‘하늘’은 천상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이며 그들 안에 하느님께서 사시고 거니시는 것이다.¹⁴⁴⁾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에 어느 곳에 매이거나 한정되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실 수 있다. 곧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의미는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실 수 있다는 의미이다. 창조된 세상 속에 창조주가 도달 할 수 없고 머물 수 없는 곳이 있을 수 없다. 그래

139) CCE, 2786, 참조.
140) CCE, 2789, 참조.
141) CCE, 2790, 참조.
142) CCE, 2792, 참조.
143) CCE, 2793, 참조.
144) CCE, 2794, 참조.

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기도할 때 다른 차원에서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어느 곳이든 무엇이든 누구에게든 하느님께서 거쳐하실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 특별히 ‘하늘’이 천상의 모습을 간직한 이들이며 하느님이 거하시는 이들이라면 천상의 모습을 간직한 이들은 피조물을 포함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바라보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Ἁγιασθήτω(빛나시며) σου(당신의) ὄνομά(이름이)

하느님은 구원 경륜의 결정적 순간들에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수행하심으로써 그 이름을 드러내신다.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날 때, 하느님의 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¹⁴⁵⁾ 하느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영원 신비에 다가갈 수 없는 중심이다. 이 신비 가운데 창조계와 역사 안에서 드러난 것을 성경은 ‘영광’, 엄위하신 하느님이 광채라고 하였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도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지만 인간은 죄로 하느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어 인간이 창조의 모상에 따라 새로워지도록 하신다.¹⁴⁶⁾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히 빛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¹⁴⁷⁾

인간 안에서 그리고 또한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과 엄위하신 광채가 드러난다. 특별히 하느님은 인간이 창조의 모상에 따라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느님으로 인해 새로워진 인간은 창조된 세상과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고 있음을 즐기게 된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고 있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 청원은 아버지 이름이 원죄로 영광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 안에서 거룩하게 빛나시도록 청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로서 창조의 모상에 따라 새롭게 된 이들이 창조계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σου(당신의) βασιλεία(나라가) ἔλθétω(오게 하시고)

신약 성경의 ‘나라’(basileia) 라는 말은 ‘왕권’(추상명사), ‘왕국’(구상명사), 또는 ‘통치’(동작명사) 등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보다 먼저 있다. 그 나라는 강생하

145) CCE, 2808, 참조.

146) CCE, 2809, 참조.

147) CCE, 2813, 참조.

신 ‘말씀’을 통해서 다가왔으며, 복음 전체를 통하여 선포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써 도래하였다.¹⁴⁸⁾ “하느님의 나라는 ……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로마 14, 17)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내려오신 때이다.¹⁴⁹⁾ 이 청원은 참 행복에 따른 새 생활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¹⁵⁰⁾

하느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하느님의 왕권 곧 그분의 힘에 의해 다스려지고 하느님의 법이 지켜지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실상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느님의 통치권을 벗어난 곳은 없기에 창조된 모든 것은 하느님의 나라이다. 다만 신적 자유의 증여로 인해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니고 이를 통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고양된 구원을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느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킨 상태가 인간에 특정한 유일한 하느님 나라 상실이다. 이렇듯 하느님 나라는 ‘이미’ 온 것이지만 인간에게 있어 하느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무엇이다. 하지만 ‘아직’은 언젠가의 ‘완성’을 품고 있다. 곧 하느님은 최종적으로 인간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는 인간이 원죄에 빠지기 이전 ‘보시니 좋은’라 창조된 세상 안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나라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 힘과 법과 뜻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욕망 속에 하느님을 거스를 수 있다.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숨는 관계의 단절 속에서 또한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몸을 가렸듯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단절을 겪으며 또한 동시에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인간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여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탄생할 때 비로소 아버지의 나라가 이룩되고 확장되며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가 회복되는 ‘보시니 좋은’ 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σου(당신의) θέλημα(뜻이) Γεννηθήτω(이루어지게 하소서)
ἐπὶ(~위에) γῆς(땅) Ὡς(~같이) ἐν(~에) οὐρανῷ(하늘)**

우리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1티모 2,4)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간 의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그리고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¹⁵¹⁾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당신 아들의 의지와 결합시켜 주실 것을 우리 아버지께 청한다. 우리는 이 점에서 근본적으로 무능하다. 그러나 예수님과 결합되고 또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의 의지를 맡겨 드리고, 당신 아들이 늘 선

148) CCE, 2817, 참조.

149) CCE, 2819, 참조.

150) CCE, 2821, 참조.

151) CCE, 2822, 참조.

택하신 것을 우리도 선택하려고 결단할 수 있으니 곧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¹⁵²⁾ 예수님께서서는 말로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마태 7,21)을 행함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¹⁵³⁾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것은 곧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은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에 앞서 기도한다. 실상 인간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상태는 곧 하느님의 힘과 뜻이 실현되는 상태 곧 하느님 나라이다. 바오로 사도는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¹⁵⁴⁾라 하였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이들이 나타나면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과 자유를 얻을 것”¹⁵⁵⁾이다. ‘이미’ 하느님의 나라이지만, 하느님의 나라가 ‘아직’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고, 인간의 영혼이 구원은 곧 피조물 전체의 영광과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

마)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δὸς(주시고) ἡμῖν(우리에게) σήμερον(이 날에)
ἡμῶν(우리의) ἐπιούσιον(일용할) ἄρτον(빵을)**

‘저희에게 주소서’ 이 말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기대하는 자녀들의 신뢰이다.¹⁵⁶⁾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고 ‘저희’라는 표현은 그분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며, 결핍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이루는 연대에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이다.¹⁵⁷⁾ 또한 ‘저희’라는 표현은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곧 인류 가족의 연대 안에서 실질적 책임을 호소하는 것이다.¹⁵⁸⁾ 참 행복에 언급된 가난은 나눔의 덕이다. 이 자발적 가난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물질적 정신적 재물을 공유하고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 줄 것을 요구한다.¹⁵⁹⁾ 이 청원은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굶주림에도 해당한다. 곧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숨결(성령)에 대한 굶주림이다.

‘일용할(epiousios)’이라는 낱말은 epi-ousios는 ‘반드시 필요한’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생

152) CCE, 2825, 참조.
153) CCE, 2826, 참조.
154) 로마 8,19.
155) 로마 8,21.
156) CCE, 2828, 참조.
157) CCE, 2829, 참조.
158) CCE, 2831, 참조.
159) CCE, 2833, 참조.

명에 꼭 필요한 또한 영적으로 꼭 필요한 생명의 빵인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계시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필요 이상의 것을 부당하게 소유하려 집착하면서 다른 이들과 피조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조차 잃게 되는 결핍이 생겨난다. 인간이 탐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한 그는 만족할 수 없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결코 만족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탐욕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살아갈 때 다른 이들과 피조물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을 누리게 된다. 생존에 필요한 조건인 일용할 양식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청하는 '저희'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 하늘과 땅 강과 바다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태계의 창조질서를 위에서 인간이 일용할 양식에서 더 갖는 것은 곧 타인과 동물과 식물이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것은 모든 형제자매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곧 '필요 이상'의 소유는 곧 '결핍'을 낳고 '결핍'은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소유한 결과이다.

'반드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인데 '영적인 양식'인 성령은 반드시 필요한 물질적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영적 양식인 성령의 결핍은 어떠한 물질적 양식으로든 채워질 수 없는 결핍상태를 초래한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 양식'을 아버지께 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안에서 충족을 누릴 수 있고 생태계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비로소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된다.

바)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Καὶ(그리고) ἄφεσις(용서하시고) ἡμῖν(우리에게) ἡμῶν(우리의) ὀφειλήματα(빚들)
Ὡς(~같이) ἡμεῖς(우리가) καὶ(또한) ἀφήκαμεν(용서했으니)
ἡμῶν(우리의) ὀφειλέταις(빚진 사람)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한다.¹⁶⁰⁾ 하지만 우리에게 잘못된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한, 하느님의 넘치는 자비가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¹⁶¹⁾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똑같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¹⁶²⁾ 성령께 마음을 여는 이는 모욕에 동정으로 대하며,¹⁶³⁾ 기도 속에서 원수를 용서한다. 용서는 기도의 정점으로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¹⁶⁴⁾

160) CCE, 2839, 참조.

161) CCE, 2840, 참조.

162) CCE, 2842, 참조.

163) CCE, 2843, 참조.

164) CCE, 2284, 참조.

인간이 서로 용서하고 있지 못한 상태의 하느님 나라를 상정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함은 사랑의 결핍과도 같다.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의 용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온전한 하느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보여준다. 충만을 향한 결핍의 상태와 완성을 향한 불완전의 상태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상처를 야기한다. 따라서 충만함과 완성을 향한 과정은 곧 용서의 과정이며 이는 성령의 사랑 속에 비로소 실현된다. 잘못으로 인한 벌은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을 하느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용서는 인간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범죄에 대한 죄책은 죄의 인지와 고의적 실행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이나 행위에 의지적 자유가 완전히 결여된 경우 죄책이 면제된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과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게 죄를 범하고 죄책을 짊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완전한 선이신 하느님과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게는 죄를 범하고 죄책을 짊어질 가능성 자체가 없다. 오직 인간만이 죄가 불가능한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게 죄를 범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죄책을 지낼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용서가 하느님의 용서에 연계된다면 인간이 저지른 범죄는 또한 하느님과의 관계와 연결된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곧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범죄를 형성하고 죄책을 짊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게 지은 범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청하고 죄책을 보상했을 때, 곧 죄로 인해 훼손된 정의를 회복시켰을 때,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이루게 된다.

사)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Καὶ(그리고) εἰσενέγκῃς(이끌지) ἡμᾶς(우리들) μὴ(마시고)
εἰς(~안으로) πειρασμόν(유혹)**

유혹에 빠지지 않게 청하는 것은 유혹에 대한 분별력과 용기의 영을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다.¹⁶⁵⁾ 성령께서는 인간의 내적 성장에 필요한 '시련'과 죄와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 '유혹'을 분별하도록 하시며 동시에 유혹을 '당하는 것'과 유혹에 '동의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¹⁶⁶⁾ 하느님께서서는 극복하지 못할 시련을 주지 않으시며 이겨낼 길도 마련하신다. 그러나 유혹의 대상은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이지만'(창세 3,6) 실제로 그 열매는 죽음이다.¹⁶⁷⁾ 하느님께서서는 늘 깨어 있는 기도 속에서 끝까지 항구하게 유혹자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¹⁶⁸⁾

165) CCE, 2846, 참조.

166) CCE, 2847, 참조.

167) CCE, 2848, 참조.

168) CCE, 2849, 참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청하는 것은 우선 먼저 유혹과 시련을 분별하는 식별력을 청하는 것이다. 적지 않은 이들이 영혼의 단련을 위한 힘든 ‘시련’을 악마의 소행으로 인식하고,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러운 악마의 유혹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착각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 사탄의 유혹은 진정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웠다. 돌이 빵이 되는 육체적 만족과 모든 세상의 나라를 차지하는 정신적 권력과 천사들이 떠받드는 영적인 명예가 유혹으로 주어졌다. 주님은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만의 경배와 섬김’과 ‘하느님이 계신지 시험하지 않음’으로 유혹을 물리쳤다.(마태 4,3-10)

인간은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얻게 되면 이를 하느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하느님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감히 하느님께 보상하려 한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물질적 풍요를 포기하고, 오직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권력을 포기하며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 명예를 포기하게 되는 때를 인간은 때때로 악마가 하느님과 자신을 갈라놓기 위한 ‘유혹’의 시간으로 여긴다.

유혹에 빠진 인간은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하느님의 축복이라 착각하는 인간은 생태계를 심하게 파괴시킨다.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하느님의 축복으로 청하며 갈구하는 이들은 이를 위해 피조물을 형제자매가 아니라 자원으로 착취하고 인간과 피조물을 자신의 뜻에 따라 지배하려 들며 헛된 명예에 목을 맨다. 그리고 스스로 이기로그득 차 성령의 은총을 잃고 점차 내면의 충만함을 상실한 채, 메마르고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음은 식별하지 못한다.

유혹과 시련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근원적 유혹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유혹과 시련을 식별하는 성령의 빛을 청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유혹이 아니라 비록 시련이라도 참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청하는 것이다. 인간은 악마의 유혹과 하느님의 단련을 분명하게 식별하고 성령 안에서 용기 있게 바른 길을 걷는 동안에는 생태계에 대한 어떠한 파괴적인 범죄도 저지르지 않게 된다.

아) 악에서 구하소서

Ἄλλα(반대로)

ῥῦσαι(끌어내소서) ἡμᾶς(우리를) ἀπὸ(~로부터) τοῦ(그) πονηροῦ(악)

악(惡)은 추상적이지 않고 한 위격, 곧 사탄, 악마이다. ‘악마’(dia-bolos)는 하느님의 계획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가로막는’ 자이다.¹⁶⁹⁾ 이 기도는 악의 세력이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모든 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다.¹⁷⁰⁾

‘악마’(dia-bolos)’는 무섭고 괴기스러운 무엇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달콤한 유혹자다. 무섭고 흉측한 존재의 접근은 오히려 인간이 하느님을 찾게 한다. 때문에

169) CCE, 2851, 참조.

170) CCE, 2854, 참조.

하느님과 인간을 갈라놓을 수 없다. 하느님과 인간을 갈라놓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이다. 곧 '우상'이 인간을 하느님과 갈라놓게 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우상'을 하느님으로 '숭배'할 때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다. '우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아니면서도 '좋은 것'이고 매우 '힘이 센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 인간은 좋은 것인 돈과 힘이 센 권력과 아름다운 명예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고 소망하며 그것들을 사랑하여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상실한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악마의 더 심층적이고 치명적인 이간질은 '인간이 하느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하느님을 흠송하면서 주님의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를 하도록 한다. 곧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느님이 이루어 주기를' 기도한다. 이는 하느님을 참되게 흠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다. 성령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어 그분의 뜻에 따라 은총으로 자신이 변화되기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변을 변화시켜 주기를 청한다. '주님'이라 부르지만 실상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이루어야 하는 '종'이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뜻하는 '아멘'은 내 뜻이 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재촉하는 추임새로 사용된다.

'악에서 구하소서.'라 기도할 때, 악으로부터의 구원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알고 청하는 것이며 이는 무엇보다 악마의 속임수를 식별하고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의 은총을 청하는 것이다. 악의 속임수에 걸려든 인간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빠진 인간은 탐욕 권력과 명예에 중독된다. 그리고 탐욕과 권력과 명예에 중독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낳고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에 스스로를 소진시키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킨다. 인간은 신적 자유의 증여로 누리게 되는 자유의지로 스스로 자신을 하느님으로부터 소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옥의 문이 인간 앞에 열린다. 그의 삶 속에 더 이상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지 않으며 창조된 만물이 창조주의 은총으로 찬란히 빛나는 것은 더더욱 보지 못한다.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모든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단절을 가져오고 결국 자신을 위하여 한 아버지의 한 가족인 생태계를 스스로 없애고 파괴하며 하느님이 아니라 피조물의 소유를 즐긴다.

라. 에밀 타케 신부의 삶이 지닌 생태 영성적 가치

1) 식물과 인간의 운명 공동체

에밀 타케(Emile Taquet, 엄택기, 1873~1952) 신부는 함께 한라산에서 식물 채집을 하던 포리 신부가 일본으로 가자 제주 자생 왕벚나무를 보내주었다. 그 답례로 포리 신부는 1911년 온주밀감나무 14그루를 에밀 타케 신부에게 보내 주었고, 에밀 타케 신부는 이를

홍로 본당 등에 식재했다. 제주에서 온주밀감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이웃에 분양하면서 감귤 나무가 확산되었다. 에밀 타케 신부가 본격적으로 과수원을 조성하여 감귤 농사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온주밀감나무의 시험적 식재와 이의 농가 분양을 통해 제주의 모습과 제주인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킨 감귤 농사가 시작된 것만은 분명하다.

왕벚나무가 없는 일본이나 감귤나무가 없는 제주는 상상할 수 없다. 제주 자생 왕벚나무가 일본으로 건너가 식재되었으며, 일본의 온주밀감 나무가 제주에 들어와 제주인의 삶의 모습을 전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식물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매우 좋은 사례다. 감귤나무는 제주인에게 단순한 과실수가 아니다.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들면 산남지역 제주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주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감귤 수확에 여념이 없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감귤의 생산과 수확과 유통과 감귤을 재료로 하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곧 많은 제주인이 감귤과 함께 감귤로 인하여 살아 온 것이다. 감귤 농사를 짓는 많은 제주인의 한 해는 감귤의 성장과 흐름을 같이 한다. 특별히 감귤의 수확은 제주인의 공동체적 삶의 성격을 형성하였다.

감귤 나무가 제주인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감귤 나무를 제주인 앞의 놓인 하나의 무감각한 대상으로서의 '그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감귤 나무는 제주인에게 인격적 주체로서의 '너'이며 삶을 함께하고 생계를 지켜준 '가족'이다. 에밀 타케 신부가 받아서 전해 준 감귤 나무를 통해 우리는 식물인 나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인간과 나무가 더불어 살아가며 인간이 나무를 변화시키고 또한 나무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관계 속에 있음을 깨닫는 생태적 영성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된다. 또한 감귤나무와 제주인이 맺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영성적 깨달음은 다른 농작물뿐만 아니라 돼지와 소 그리고 자리 돔과 갈치 등의 동물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 역시 한 아버지인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형제자매들로서 그들에 의지해 우리가 먹고 살아왔음을 느끼고 감사하게 한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에밀 타케 신부와 포리 신부는 함께 한라산에서 채집 활동을 하면서 식물이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감수성은 성령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신부는 일본과 제주에 떨어져 살면서 서로 다른 식물들을 서로에게 선물했고 이 선물들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변화되어 갈 것이라 희망하였을 것이다.

2) 창조된 세상에 대한 영적인 시선

에밀 타케 신부는 한라산에서 식물의 표본을 채집해 유럽 학계에 알렸다. 특별히 제주에서 머물렀던 13년 동안 1만 점 이상의 식물 표본을 채집해 유럽과 미국, 일본의 식물학자에게 보냈다.

에밀 타케 신부는 자신의 이름을 딴 '타케티(taquetii)'라는 이름을 붙인 식물들이 있다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느님의 영은 에밀 타케 신부가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임을 느끼게 해 주었을 것이고 그의 영혼을 인간적인 공적보다 식물 자체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으로 안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식물 표본의 수와 가는 곳마다 표본을 채집했다는 기록은 에밀 타케 신부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고 있는 식물들의 광채에 이끌렸고 그것에 매료되어 있었음을 증언한다. 그가 식물들에게 다가간 것은 창조주 하느님의 작품에 매료된 것이고 그 아름다움 속에 그것을 창조하신 분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순간들이었을 것이다. 각각의 식물들이 지닌 특징과 빛과 생명력을 세밀하게 바라보며 관찰하고 기록할 때 에밀 타케 신부는 경이로움 속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에밀 타케 신부의 식물 표본 작업은 생태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작품이다. 에밀 타케 신부의 작업은 위대한 화가나 조각가가 만든 자연의 어설픈 모조인 작품을 애지중지하는 인간이 하느님의 작품을 대하는 태도는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어떠한 작가도 심지어 사진가라 할지라도 자연이 지닌 본연의 색감과 말로 형언하지 못하는 창조주 하느님의 손길이 찬연한 광채를 발하고 있는 모습이 지닌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우리는 에밀 타케 신부가 생태계를 바라보았던 영적 시선이 하느님의 창조되지 않은 은총에 의해 에밀 타케 신부 안에 창조된 은총이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우리 또한 같은 아름다움을 보고 즐길 수 있기를 소망한다.

3) 생태계의 보존과 기록이 지닌 가치

에밀 타케 신부는 1908년 4월 14일 한라산 해발 600미터 지점에서 제주도 자생 왕벚나무를 발견했다. 그 표본은 1912년 독일 베를린대학 쾨네 교수에게 보내졌고 쾨네 교수가 이 표본을 학술지에 최초로 등재했다.

왕벚나무는 아름답다. 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은 벚꽃나무 길을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걷는다. 그들의 얼굴엔 미소와 설렘이 가득하다. 운전을 하며 도로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나무들과 나무들에서 흩날리는 벚꽃 잎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행복함을 느낀다. 봄철 제주의 벚나무들이 제주인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감 등의 정서적 위안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 벚나무 없이 제주인들에게 그만한 기쁨과 정서적 위로를 주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의 비용이 지불되어야 할지 계산할 수 있을까?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도 봄철 제주 전역에서 제주인이나 관광객에게 왕벚나무가 주는 정서적 위안을 대신할 방법은 없다. 왕벚나무가 주는 정서적 위안은 왕벚나무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말하자면 대체불가의 가치를 지닌다. 자연은 이렇듯 금전적 가치로 대치하거나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에밀 타케 신부는 자생 식물이나 독특한 식물이 하느님의 보물로서 형언할 수 없는 가치

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록하고 보존하였다. 식물을 하느님의 창조물로 인식하고 새롭게 발견한 식물에 대해 경탄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고 보존하려 한 것은 에밀 타케 신부가 하느님의 영 안에서 왕벚나무를 숨겨져 있던 하느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 에밀 타케 신부의 삶이 지닌 영성적 의미

에밀 타케 신부의 영성에 대해 살피는 것은 그것이 '영성'인 한 에밀 타케 신부의 인간적 업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에밀 타케 신부 안에서 작용하였던 성령의 움직임과 그 움직임이 에밀 타케 신부 안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에밀 타케 신부는 성령의 작용으로 모든 식물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에밀 타케 신부의 영성을 바라보는 작업이나 기념사업도 성령의 작용 안에서 에밀 타케 신부를 통해 역사하신 하느님 성령의 흔적을 살피고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찾는 작업이어야 한다. 인간적 시선은 자연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안에서도 인간적 필요나 인간적 요소를 찾고 그것에만 머물지만, 영적인 시선은 언제나 자연뿐만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도 성령의 움직임을 찾고 그것을 즐긴다.

에밀 타케 신부의 삶이 지닌 생태 영성적 의미를 간략히 살피는 과정을 통해 하느님께서 에밀 타케 신부를 통해 제주인에게 감굴을 선물하셨으며 제주의 독특한 식물 자원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왕벚나무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선물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굴나무와 왕벚나무 그리고 다수의 식물표본은 에밀 타케 신부의 선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에밀 타케 신부가 우리에게서 하느님의 선물이다.

마. 생태계 위기의 사상적 원인과 극복

생태계 파괴의 원인은 창조 질서인 생태계 전체의 균형이 파괴된 때문인데 파괴의 주체가 '인간'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간이 생태계의 균형을 허문 이유는 인간이 지닌 사상의 불균형 상태 때문이다.

1) 신권(神權)과 인권(人權)의 불균형

근세 유럽에서 하느님 중심에 기초한 인간 중심주의가 무너지고,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가 대두되면서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는 하나의 자동 기계와 같이 취급되었고,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은 스스로 이 자동 기계의 원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생태계를 자의적이고 무분별하게 활용함으로써 생태계에 대한 파괴가 가속되었다.¹⁷¹⁾

171) 앞의 글, p. 46, 참조.

따라서 다시 균형을 잡는 과정은 생태계에 대한 창조주 하느님의 전권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주권자로서의 '하느님'과 하느님의 종이며 창조물의 형제인 '인간'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을 다시 회복할 때, 생태계 균형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¹⁷²⁾

2) 인간의 모상성(模像性)과 피조성(彼造性)의 불균형

생태계의 불균형을 가져온 또 다른 사상적 불균형은 바로 인간이 자신을 인식함에 있어 '신적인 존재'라는 측면에 치우쳐 '창조된 조물'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한데 있다. 곧 인간이 신에 귀속된 존재임을 망각한 채, 공생해야 하는 자연을 형제요 자매로 돌보려하기 않고,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하나의 자원이요 도구로 전락시켜 창조 질서를 거스름으로써 생태계의 파괴가 자행된 것이다.¹⁷³⁾

따라서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사상적 노력은 하느님을 대체하고 하느님의 위치에서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아 다시 하느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이라는 위치로 이동시켜, 인간 이해에 있어서 하느님의 모상성과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피조성이 서로 균형의 상태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인간 이해에 있어서 '모상성'과 '피조성'이 균형을 이룰 때, 결국 생태계도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¹⁷⁴⁾

3) 자연에 대한 인간의 순응과 정복의 불균형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시킨 또 다른 사상적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감에 있어 주어지는 환경에 대한 순응과 정복의 노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무조건 주어진 환경을 정복하고 극복하는 것이 선(善)인 것으로 생각하는, 곧 자연의 정복과 운명의 극복을 미덕(美德)으로 평가하는 사상적 불균형 상태 때문이다.¹⁷⁵⁾

생태학계의 일부에서는 성경의 자연에 대한 지배 명령이 자연의 착취를 조장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이끄심에 인간이 온전히 순명하고 순응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간의 전적인 자유와 방종을 하느님과 맺은 주종 계약과 계약의 조문인 율법을 통해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다. 율법은 인간이 자연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생명의 소유권이 오직 하느님께만 유보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¹⁷⁶⁾

현대는 자연에 대한 순응보다 자연의 정복과 극복이 우선시 되는 사상적 불균형 상태에

172) 위의 글, p. 46, 참조.

173) 위의 글, p. 47, 참조.

174) 위의 글, pp. 47-48, 참조.

175) 위의 글, p. 48.

176) 위의 글, p. 49.

놓여 있다. 따라서 자연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간의 삶 안에서 대 자연에 대한 '순응'의 노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연에 대한 '정복'이란 개념 자체를 포기 하고 생태계와 인간이 도전과 정복의 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상생'이라는 균형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생태계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¹⁷⁷⁾

4) 종교적 사유와 이성적 사유의 불균형

생태계의 파괴는 서구인이 종교적 사유를 잃고 이성적 사유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 하면서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사유와 이성적 사유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 하고 지탱해주며 인간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준다. 이성적 사유가 종교적 사유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거나, 또한 이성적 사유가 올바른 종교적 사유의 조명으로 이끌리지 못하게 되면, 인간의 삶은 올바른 방향성을 찾지 못하게 되고 사상적인 불균형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¹⁷⁸⁾

따라서 지나치게 이성적 사유에 치우쳐 있는 현대인에게 다시 종교적 사유의 빛을 비출 필요성이 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철저한 신앙 정신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사유의 생명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희랍 철학의 이성적 사고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안에서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세계적인 보편 종교로서 세대를 초월하며 지속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성적 사유에 치우친 불균형 상태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가 신앙과 이성의 균형을 이루는 본보기를 보여 주면서 다시 종교적 사유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을 때, 현대인들은 다시 균형 잡힌 종교적 사유와 이성적 사유의 시각으로 생태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균형 상태에서 생태계 회복을 위한 인류의 노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¹⁷⁹⁾

3. 결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유 전통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눈앞에 펼쳐진 자연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자연이 온전히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어떤 것을 담지하고 있든, 아니면 초월적인 어떤 존재의 은총 아래에 있든, 그것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이든, 아니면 자동기계이든, 그것들에 상관없이 인류에게 있어서 자연은 항상 '생존의 터전'이었다. 시초부터 인간은 자연 안에서 생존해 왔으며 그 안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왔고 그러면서 진화해 왔다.¹⁸⁰⁾

177) 위의 글, p. 49.

178) 위의 글, p. 49, 참조

179) 같은 글, p. 50, 참조.

180) 같은 글, p. 108.

자연 과학의 발전 자체가 생태계 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자연에 대한 탐구를 통해 얻어진 지식들이 생태계를 이용하고 착취하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재화를 생산하는 실용적 도구로 사용되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가 생태계 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종교적 사유 전통'보다는 '이성적 사유 전통'이 생태계 파괴에 더 큰 영향을 주었지만, 생태계 파괴에 관련하여 '이성적 사유 전통'과 인간의 '본능적 욕구 충족'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오히려 많은 이성적 사유 전통들은 본능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무한 질주하는 인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¹⁸¹⁾

생태계 보존을 목적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사상적 대안들 역시 생태계 자체의 보존을 지향하기보다 보존된 생태계 안에서 '인간의 지속적 생존'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성찰하게 한다. 생태계 위기에 직면하여 교회는 신앙의 진리를 신학이나 교의로 설명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교회의 실천적 삶으로 증거 하면서, 신앙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서 분명한 삶의 지침을 제시하는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앙의 빛은 이성의 틀을 매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매개로 전달된다.¹⁸²⁾

그렇기 때문에 생태 영성에 대한 학문적 숙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삶을 살았던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나, 에밀-타케 신부와 같은 삶의 증거가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그분들의 삶은 주님의 영에 이끌린 삶이었고 그 뜻에 순종한 삶이었다. 우리 역시 햇빛과 같이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시는 생명의 영에 우리의 영혼을 활짝 개방하고 그 힘으로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실제적인 삶의 실천을 위하여 가톨릭 윤리신학의 대물윤리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생태계가 맺는 올바른 윤리적 관계에 대한 새롭고 올바른 관계성에 대한 가르침을 시급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윤리적 관계에 대한 재정립의 결과는 구약의 율법인 토라의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교의 율법인 교회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81) 위의 글, p. 109, 참조.

182) 위의 글, pp. 111-113, 참조.



[토론문]

에밀 타케 신부의 식물학적 업적에 대한 생각

송 관 필 박사(제주생물자원연구소장)

에밀 타케 신부가 제주도 식물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 우리의 식물은 약초의 구분, 먹거리의 구분, 목재의 구분과 땀감 등의 사용처로 생각했을 뿐 체계적인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서양(유럽)에서는 17세기부터 체계적으로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연구가 시도 되었고, 18세기에 칼 폰 린네에 의해 이명법이 만들어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말 서양문물이 활발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씩 배우게 되는데, 특히 제주도의 식물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계기는 에밀 타케 신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행사의 발제인 '에밀타케 신부의 식물학적 업적과 제주 식물의 가치 전승 방향'은 우리 제주도의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식물과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이란 작은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만들고 알리는데 기여한 여러 외국인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이는 식물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며,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식물명이 탄생한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학명의 구조를 보면, 구상나무의 학명이 *Abies koreana* E. H. Willsn이다. *Abies*는 속명이고 *koreana*는 종소명이며 E. H. Willsn은 이를 명명한 사람이다. 보통 학명은 명명자를 제외하여 기울여 쓰거나 밑줄로 표기한다. 구상나무의 경우 *Abies* 속 식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하여 제작된 표본에서 기인하였다하여 'koreana'라는 종소명을 사용한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이번 발제의 자료에서 한라부추(*Allium taquetii* H.Lev. & Vaniot), 좀갈매나무(*Rhamnus taquetii* H.Lev.), 애개장구채(*Silene taquetii* H. Lev.), 돌가시나무(*Rosa taquetii* H.Lev), 큰각시취(*Saussurea taquetii* H.Lev & Vaniot) 등의 학명을 보면 종소명이 타케신부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이외에도 제주큰물통이, 겨이삭여뀌, 뽕잎피나무, 한라산진달래, 한라노루오줌, 사슴딸기, 송금나무, 섬잔대, 가세덜꿩나무, 갯취, 해변취, 섬거북꼬리 등 제주의 식물에 타케신부의 이름이 많은 것은 그만큼 영향이 많았다는 단적인 증거인 것이다.

타케신부의 역할은 제주의 식물을 잘 아는 학자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고 이를 통해 제주를 세계에 알린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보다 좋은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라 생각된다.

업적·삶 재조명 가치 제고해 나가야

강시영 기자(전 한라일보 선임기자)

선구자에 대한 업적 재조명과, 연구사를 재정립하고 후세에 남겨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에밀 타케의 업적을 집대성하는 것은 기념사업의 시초가 될 것이다. 사목 등 종교적 관점을 초월하는 자료 집대성을 토대로 에밀 타케의 업적과 의미를 알리고, 뜻을 기리기 위한 학술대회 개최 등 연차별 세부 기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밀 타케 재조명과 기념사업은 최근 부종휴 선생의 사례를 적극 참고할만하다. 제주 세계유산 선각자인 부종휴는 최근까지 방치되다시피해오다 각계의 노력과 관심으로 기념사업회가 발족되고 제주도가 예산을 반영하면서 기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제주 선각자 지원조례를 준비중이다.

에밀타케(1873~1952)의 서한과 사진자료, 해외에 보낸 식물표본자료 조사 등 기록 자료 등을 총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에밀타케의 생전 업적과 삶을 재조명하여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1) 자료 총괄 수집 정리 및 업적 도출

- 사진자료 현황 파악 및 1차 데이터베이스화
- 서한, 언론 게재 자료 등 수집 및 집대성
- 온주밀감 도입 관련 자료 발굴
- 세계유산 한라산과 연계된 업적 도출과 자료화
- 연구업적을 기리는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

2) 기념사업

에밀 타케 기념사업은 크게 5개년(2020~2025년) 계획사업으로 ① 학술사업 ② 기념사업 ③ 활용사업으로 나뉘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학술연구총서 발간

에밀 타케는 식물학적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 수집 확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타케의 업적을 체계적, 학술적으로 정리한 연구총서 등 발간 작업이 미진한 데 원인이 있다. 다른 사업에 앞서 타케의 업적을 확보하고 신진 연구자들이 정리한 조사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에밀타케 학술연구총서' 발간 작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 한라산 식물 채집 표본자료 사진도록 제작

일본과 유럽 대학과 식물원 등에 흩어져 있는 한라산 식물 표본자료 등을 조사해 도록 제작과 이를 DB화 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 에밀 타케 학술대회 개최

타케의 업적은 사제로서 뿐만 아니라 한라산과 제주 식물사 연구의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제주학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학술대회의 장을 마련, 그의 업적을 학술적으로 대내외에 널리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 에밀 타케 메모리얼 룸 조성

공공시설물의 공간을 활용하여 에밀타케 메모리얼 룸(memorial room)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메모리얼 룸에는 타케의 유품과 주요 업적물,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함으로써 타케를 기억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타케로 조성 및 명명

지역의 역사적 인물이나 유명인을 딴 길(도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과 인물이 남긴 업적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문화관광자원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전국적으로도 역사인물이나 예술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물을 길이나 도로명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많다. 이런 맥락에서 사목했던 서귀포에 '타케로' 라든가, '타케 왕벚로' 등 일정 구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하여 업적과 성과를 널리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 에밀 타케 주간 운영

왕벚꽃축제나 감귤축제 등을 전후해 '에밀타케 주간'을 설정하고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타케의 업적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도내외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기타

- 주한프랑스대사관의 협조로 국제교류
- 이미지 활용한 기념품 등 제작

에밀 타케 신부의 존재의 향기를 그리며

황 종 열 박사(두물머리복음화연구소)

에밀 타케 신부의 업적과 가치 전승 심포지엄

에밀 타케 신부의 존재의 향기를 그리며

황종열 (두물머리복음화연구소)

ismcsh@hanmail.net

“두물머리의 영으로” (cafe.daum.net/dmspirit)

▶ 창조물이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신학과 영성과 사목과
그렇지 못한 신학과 영성과 사목

▶ 아름다움은 의미를 창출한다

▶ 천지여아동근 만물여아일체
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一體

천지부모 만물형제
天地父母 萬物兄弟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노래

프란치스코의 지광풍수 부모 형제 노래

▶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깔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하나이다.

▶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특히 형제인 태양으로 찬미받으소서.
태양은 낮이 되고
주님께서서는 태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시나이다.
태양은 아름답고 찬란한 광채를 내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나이다.

...

▶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형제인 바람과 공기로,
흐리거나 맑은 온갖 날씨로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서는 이들을 통하여 피조물들을 길러주시나이다.

- ▶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누이인 물로 찬미받으소서.
물은 유용하고 겸손하며 귀하고 순결하나이다.
- ▶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형제인 불로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불로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불은 아름답고 쾌활하며 활발하고 강하나이다.

-찬미받으소서 1항과 87항

하느님 창조에서 풍광수지(風光水地) : 창세기 1,1-2,4a

1장

- ▶ 1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 ▶ 2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 ▶ 3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 ▶ 4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 ▶ 5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 ▶ 6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 ▶ 7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 ▶ 8 하느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 ▶ 9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곳으로 모여,
물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 ▶ 10 하느님께서 물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 ▶ 11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 ▶ 12 땅은 푸른 싹을 돋어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어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 ▶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

- ▶ 26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 ▶ 27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 ▶ 28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 ▶ 29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 ▶ 30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 ▶ 31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셋날이 지났다.

2장

- ▶ 1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 ▶ 2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 ▶ 3 하나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 ▶ 4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 ▶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다” 하셨다.
- ▶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다.
- ▶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사람들.

SYMPOSIUM



주최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역사문화진흥원
Jeju History & Culture Institute

주관  제주역사문화진흥원
Jeju History & Culture Institute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교구 서귀포성당

협력 에밀타케 식물연구소 | 서귀포성당 타케신부기념사업추진위원회